

평의회·이사회 '기성회계 예산' 공방

총장 재선거 여부 교직원 총투표 통해 결정

“장학금, 도서관구입비 등 23억 증액해야”

“국제언어센터 건립차입금상환이 먼저”

‘2009학년도 기성회 회계 예산 편성’이 기성회 이사회의 의결권에 의해 평의회에 재심의와 조인 요청도 없이 단독 의결돼 논란이 일고 있다.

평의회는 지난달 10일 평의회 재적인원 38명 중 20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4차 평의회를 열고 2008년도 기성회계결산보고 및 2009학년도 기성회계세입세출예산편성안을 확정 시켰다.

평의회 회의 자료에 따르면 예결산본과위원회의 심의 내용은 △국제 언어문화 교육센터 건립 차입금 상환(13억 5000만원) 집행 보류 △교내 학생장학금(4억 1464만 1천원) 증액 △도서관구입비(3억 원) 증액 △법학전문대학원 육성 보조금(4410만원) 증액 △공학교육인재 대비 교육환경 개선 사업비(2억원) 증액 등이다. 특히 평의회 심의 결과 중 쟁점이 되는 부분은 재정과 소관의 ‘국제언어문화교육센터 건립차입금 상환의 건’에 대해서는 집행을 보류하고 8대 총장이 취임한 이후 차입금

상환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안을 마련한 뒤, 평의회 안건으로 상정해 재논의하기로 했다.

그러나 이러한 심의 내용은 3일 뒤 완전히 바뀌어져 의결됐다. 평의회 규정 10조와 12조에 따르면 예산부분의 경우에도 심의결과에 의의가 있을 때는 평의회에 재심의 받아야 하지만 그러한 과정은 생략됐다.

이에 대해 부영철 재정과장은 “우리대학의 매우 중요한 사업비를 삭감한 재원 23억 1820만원을 대학 당국의 동의 없이 다른 세출 예산에 증액 시킨 것은 향후 우리 대학의 예산적 부담을 가중하는 것”이라며 “대학재정 형편상 수용하기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는 불가피하게도 기성회 이사회의 심의 과정에서 조정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평의회 심의로 증·감액 됐던 부분은 기성회 이사회의 재심의와 의결로 원점으로 돌아왔다. 기성회 이사회 심의 의결 내용에 의하면 “증액된 내역 12억

7184만 1000원에 대해서는 제8대 총장직접 사업에 계상하며, 국제언어문화교육센터 기성회예산은 열악한 대학재정의 이자부담을 고려해 학내 심의기구의 의견에도 불구하고 의결기관인 본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2009년도 기성회계 예산확정 시 지체 없이 상환하여야 한다”고 의결했다. 이에 대해 고영철(언문홍보학과 교수) 예결산본과위원회 위원장은 “기

성회 규약 1조에 따라 기성회비는 ‘국가의 부담으로 미치지 못하는 긴급한 교육시설과 학교운영을 등을 지원해 면학분위 조성 교육여건 개선을 위해 사용하도록 되어 있다’며 “학생들의 장학금과 도서관구입비 등, 시급한 사립인 공학인증제 지원부분이 왜 감액됐는지 모르겠다”고 밝혔다.

박준건 기자



지난달 31일 오후 2시 30분 제주대 체육진흥센터에서 열린 2009년도 특수분야 직무연수에 전국 교사들이 찾아와 스무배 강자를 받고 있다.

박준건 기자

총장추천위원회가 교수회에 오는 10일까지 재선거 여부를 묻는 투표를 실시할 것을 요청하자, 교수회는 조만간 교수와 직원 총투표를 통해 재선거 시행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관련기사 4면

교수회는 지난달 30일 오전 긴급회의를 열고 총추위가 요구한 ‘재선거 여부’에 대한 교직원 찬

교과부 “오는 17일까지 재선거 일정 확정해야”

반투표를 수용하기로 했다. 그러나 투표 일자와 방법, 의결 조건에 대해서는 추후 임원회의와 전체회의를 열고 결정하기로 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이에 앞서 지난달 28일 제주대에 보낸 ‘총장 임용후보자 직권 제청 계고’ 공문을 통해 “재선거 실시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50일 이내에 선거일을 정하도록 되어 있으나, 법정기한이 이미 경과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재선거일을 확정하지 않고 있어 깊은 유감과 우려를 표한다”면서 “교육공무원법 등 관련법령에서 정한 8월 17일까지 재선거 일정을 반드시 확정할 것을 요청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대학의 장을 제청할 계획임을 알린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총장임용추천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교과부의 재추천 반례를 거부함과 동시에 사실상 재선거를 하지 않기로 한 결정’을 철회하고 교직원을 상대로 재선거 실시 여부를 묻는 찬반투표를 실시키로 했다.

총추위는 ‘제8대 총장임용후보자 재선거 실시 여부’에 대해 교직원 찬반 투표를 실시, 과반수 결과를 수용할 것이며, 오는 17일까지 교과부에 재선거 일정을 통보해야 하므로 오는 10일까지 투표 결과를 얻어야 한다고 결정했다.

이날 재직위원 20명중 18명이 참석한 회의에서 무려 4시간에 걸쳐 난상토론이 거듭됐지만, 사태 해결에 대한 총추위 위원들의 견해를 확인하는 데 그쳤다. 그러나 재선거 시행여부를 묻는 찬반투표를 결정한 것은 과반수인 11명 우려와 학교 정상화를 촉구하는 대내외의 ‘압박’이 최고조에 달했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따라 교직원 과반수 이상이 재선거에 찬성하면 총추위는 감시용 교수를 제외한 총장 후보 선출을 위해 재선거를 할 전망이다. 반면, 재선거에 반대하는 표가 과반수에 이르면 교과부는 이미 ‘직권 제청 계고’ 공문을 통해 밝혔듯이 관련 총장을 임명하게 된다.

정용복 대기자

평생교육원 교육과정생 모집

평생교육원에서 ‘2009학년도 제2학기 평생교육원 일반교육과정’ 교육생을 이달 25일까지 모집한다.

교육과정의 내용은 교양, 외국어, 예술, 전문교육, 생활체육과정 등이다. 자격은 학력 및 자격제한 없이 누구나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자는 이달 25일까지 평생교육원 행정실에 원서를 접수하고 등록금을 납입해야 한다. 원서접수 방법은 인터넷접수와 방문접수로 받는다. 기타 문의사항은 평생교육원(754-2704~5)으로 문의하면 된다.

출판부, 문화부 우수도서 3종 선정

최규일·서두옥·김태일 교수 신간

출판부(출판부장 이창익)가 발간한 신간 3종이 2009년도 문화관광부 선정 우수 학술도서로 선정됐다.

최규일 사범대학 국어교육과 교수의 저서 ‘한국어 어휘 형성론’과 서두옥 해양산업공학부 교수 등 3인 공동저자의 ‘제주 해양산업의 이해’, 김태일 건축학부 교수의 ‘제주 도시건축을 이야기하다’ 등 3종이 문화체육관광부 우수 학술도서로 선정됐다.

최규일 교수의 ‘한국어 어휘 형성론’은 언어 체계에 내재한 수많은

언어재의 구성 요소에 따른 원리와 규칙을 체계화하기 위해 어휘형성에 관한 논문을 모아 종합 정리했다. 또 한국어 어휘형성론의 이해와 폭을 넓히기 위해 독일어 어휘 형성에 관한 연구 자료를 모아 발표한 논문들을 정리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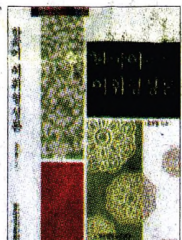
서두옥 교수와 그의 제자인 이창현(제주대실업선 근무)씨와 김병열(국립수산과학원 근무)씨가 공동저술한 ‘제주 해양산업의 이해’는 대학 재학생의 교양교과 강

의용으로서 저술하였으며 어업종사자, 수산관련 공무원, 각종 고시준

비 증인
자 등에
게도 유
용한 책
이다.

김태
일 교수
의 ‘제
주 도시
건축을
이야기하다’는 신문과 방송, 잡지 등에 소개되었던 글을 모아 새롭게 정리했다. 제주의 전통 풍경과 도시경관, 제주 하천과 해안풍경, 제주 도시건축 미학 등으로 나눠 소개하고 있다.

한편 올해 문화부의 우수 학술 도서에는 총류, 철학, 종교, 사회과학, 순수과학, 기술과학, 예술, 연



직능원, 공인외국어 시험 지원

TOEIC, JLPT, HSK 등

직업능력개발원에서 TOEIC, JLPT, HSK 등 공인외국어시험에 응시한 학생들에게 응시료를 지원한다.

이 계획은 2009년 3월 1일 이후 시험에 응시하고 지원기준을 충족하는 학생만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지원기준은 △영어 토익(600점 이상), 토플(CBT 163이상, IBT 57이상), 텡스(476점 이상) PELT(main 2급 이상, plus 2급 이상) △일본어 JLPT(2급 이상), JPT(540 이상) △중국어 HSK(4급 이상) △독일어 ZD(2급 이상)

이다.

1차 응시료 지원마감은 9월 30일까지이고, 내년 2010년 2월 20일까지 2차 지원이 가능하다. 지원금은 각 학기 및 방학기간 시험을 본 학생에게 지급된다. 지원 시 제출서류는 공인외국어시험 응시료 지원 신청서 1부와 응시료 납부영수증 또는 응시료 납부증명서류 1부, 공인외국어시험 성적표 및 통장사본 각 1부이다. 자세한 사항은 직업능력개발원(754-2306)에 문의하면 된다.

김도연 수습기자

2009학년도 기성회회계 세입·세출예산 현황

◆ 세입예산

(단위:천원)

과목	2009학년도 예산액(A)		2008학년도 예산액(B)		증감액(C=A-B)	증감율(C/B)
	금액	구성비	금액	구성비		
회비수입	33,940,375	72%	32,749,516	70%	1,190,859	4%
이월금	5,261,834	11%	3,633,368	8%	1,628,466	45%
보조금	3,149,132	7%	3,027,073	6%	122,059	4%
잡수입	875,000	2%	3,863,650	8%	-2,988,650	-77%
소계	43,226,341	91%	43,273,607	93%	-47,266	0%
수입대체경비	4,123,551	9%	3,341,538	7%	782,013	23%
합계	47,349,892	100%	46,615,145	100%	734,747	2%

◆ 세출예산

(단위:천원)

과목	2009학년도 예산액(A)		2008학년도 예산액(B)		증감액(C=A-B)	증감율(C/B)
	금액	구성비	금액	구성비		
기준경비	23,907,441	50%	21,639,087	46%	2,268,354	10%
운영비	5,814,295	12%	6,656,643	14%	-842,348	-13%
사업비	13,053,541	28%	14,449,944	31%	-1,396,403	-10%
과년도지출	1	0%	1	0%	0	0%
잡지출	1	0%	1	0%	0	0%
예비비	200,000	0.4%	285,744	1%	-85,744	-30%
소계	42,975,279	91%	43,031,420	92%	-56,141	0%
수입대체경비	4,374,613	9%	3,583,725	8%	790,888	22%
합계	47,349,892	100%	46,615,145	100%	734,747	2%

◆ 과목별 세출예산 총괄표

		2009학년도 예산액(A)		2008학년도 예산액(B)		증감액 (C=A-B)				3,900,532		8.2%	7,385,474		15.8%	-3,484,942		
		금	액 구성비	금	액 구성비													
합		47,349,892	100.0%	46,615,145	100.0%	734,747												
일반운영경비		42,975,279	90.8%	43,031,420	92.3%	-56,141												
인건		16,799,467	35.5%	16,286,041	34.9%	513,426												
101	인건	3,557,468	7.5%	3,432,244	7.4%	125,224												
	01 봉급	3,042,240	6.4%	2,924,386	6.3%	117,854												
	02 상여금	225,645	0.5%	119,510	0.3%	106,135												
	03 정액수당	177,649	0.4%	264,318	0.6%	-86,669												
102	04 초과근로수당	111,734	0.2%	124,030	0.3%	-12,296												
	05 기타수당	1,126,330	2.4%	1,230,578	2.6%	-104,248												
	06 인건보조금	139,057	0.3%	152,690	0.3%	-13,633												
	07 연구보조비	11,976,612	25.3%	11,470,529	24.6%	506,083												
103	01 경영연구비	3,402,976	7.2%	3,355,353	7.2%	47,623												
	02 행정관리비	739,682	1.5%	710,472	1.5%	29,210												
	03 연구자료비	2,249,932	4.8%	2,219,888	4.8%	30,044												
	04 직무개발비	620,470	1.3%	590,824	1.3%	29,646												
104	05 국고연구보조비	1,999,132	4.2%	2,532,270	5.4%	-533,138												
	06 국제개발연구비	2,080,756	4.4%	1,547,374	3.3%	533,382												
	07 교육지원활동비	883,664	1.9%	514,348	1.1%	369,316												
	08 인건	9,706,000	20.5%	9,864,395	21.2%	-158,395												
201	학교운영비	6,629,422	14.0%	6,617,511	14.2%	11,911												
	01 일반관리비	1,284,506	2.7%	1,466,430	3.1%	-181,924												
	02 공공요금및제세	1,530,802	3.2%	1,545,010	3.3%	-14,208												
	03 과목비	4,750	0.0%	5,001	0.0%	-251												
202	05 특근대식비	25,014	0.1%	24,714	0.1%	300												
	06 운영수당	87,425	0.2%	91,025	0.2%	-3,600												
	07 인차료	202,301	0.4%	152,701	0.3%	49,600												
	08 연료비	537,940	1.1%	838,145	1.8%	-300,205												
203	09 시설장비유지비	2,454,563	5.2%	2,007,776	4.3%	446,787												
	10 차량선박비	35,068	0.1%	40,880	0.1%	-5,812												
	11 재료비	467,023	1.0%	445,829	1.0%	21,194												
	204	여비	736,039	1.6%	860,578	1.8%	-124,539											
301	국내여비	657,593	1.4%	684,378	1.5%	-26,785												
	02 국외여비	78,446	0.2%	176,200	0.4%	-97,754												
	203	교육지원비	114,800	0.2%	179,600	0.4%	-64,800											
	204	업무추진비	728,755	1.5%	654,713	1.4%	74,042											
302	특별후생비	733,661	1.5%	729,264	1.6%	4,397												
	205	연구개발비	763,323	1.6%	822,729	1.8%	-59,406											
	301	상이건	12,369,278	26.1%	9,209,764	19.8%	3,159,514											
	302	보상금	4,008,941	9.7%	4,198,867	9.0%	-410,074											
303	퇴직충당금	488,914	1.0%	356,936	0.8%	131,978												
	304	배상금	100,000	0.2%	113,585	0.2%	-13,585											
	305	기타상비	7,171,423	15.1%	4,540,376	9.7%	2,631,047											
	자본지출	3,900,532	8.2%	7,385,474	15.8%	-3,484,942												
403	토지매입비	0	0.0%	0	0.0%	0												
	404	시설비	1,300,346	2.7%	5,177,357	11.1%	-3,877,011											
	406	시설부대비	207,500	0.4%	149,000	0.3%	58,500											
	407	기타자산취득비	912,436	1.9%	2,059,117	4.4%	-1,146,681											
408	이상환급	1,480,250	3.1%	1,480,250	3.1%	0												
	과년도지출	1	0.0%	1	0.0%	0												
	잡지출	1	0.0%	1	0.0%	0												
	수입대체경비	4,374,613	9.2%	3,583,725	7.7%	790,888												
인건	인건	1,738,184	3.7%	1,251,689	2.7%	486,495												
	101	인건	58,394	0.1%	0	0.0%	58,394											
	01	봉급	58,394	0.1%	0	0.0%	58,394											
	102	기타수당	1,313,440	2.8%	966,476	2.1%	346,964											
103	인건보조금	19,640	0.0%	12,360	0.0%	7,280												
	104	연구자료비	299,510	0.6%	250,053	0.5%	49,457											
	104	교육지원활동비	47,200	0.1%	22,800	0.0%	24,400											
	운영	1,949,463	4.1%	1,750,342	3.8%	199,121												
201	학교운영비	1,574,387	3.3%	1,491,474	3.2%	82,913												
	01	일반사무용비	592,637	1.3%	717,078	1.5%	-124,441											
	02	공공요금및제세	501,822	1.1%	342,306	0.7%	159,516											
	03	과목비	7,180	0.0%	6,280	0.0%	900											
202	05	특근대식비	20,881	0.0%	12,015	0.0%	8,866											
	06	운영수당	17,818	0.0%	13,368	0.0%	4,450											
	07	인차료	6,400	0.0%	24,400	0.1%	-18,000											
	08	연료비	56,015	0.1%	47,600	0.1%	8,415											
203	09	시설장비유지비	343,634	0.7%	314,777	0.7%	28,857											
	11	재료비	28,200	0.1%	14,250	0.0%	13,950											
	202	여비	151,384	0.3%	131,000	0.3%	20,384											
	01	국내여비	106,784	0.2%	91,800	0.2%	14,984											
204	02	국외여비	44,600	0.1%	35,400	0.1%	9,200											
	03	외빈초청경비	0	0.0%	3,800	0.0%	-3,800											
	204	업무추진비	140,193	0.3%	107,568	0.2%	32,625											
	205	특별후생비	13,499	0.0%	2,300	0.0%	11,199											
206	연구개발비	70,000	0.1%	18,000	0.0%	52,000												
	경상	608,366	1.3%	428,844	0.9%	179,522												
	301	기본보상금	52,179	0.1%	41,350	0.1%	10,829											
	302	퇴직충당금	26,283	0.1%	16,600	0.0%	9,683											
303	배상금	13,053	0.3%	143,113	0.3%	-12,460												
	304	미수금	72,784	0.2%	44,902	0.1%	27,882											
	305	기타수입보조	326,467	0.7%	182,879	0.4%	143,588											
	자본지출	78,600	0.2%	152,850	0.3%	-74,250												
404	시설비	0	0.0%	39,350	0.1%	-39,350												
	407	기타자산취득비	78,600	0.2%	113,350	0.2%	-34,750											

교직원 통근버스 “학생 이용하면 안되나요”

저소득층·장애우라도 먼저 허용을

제주대가 보유하고 있는 대형버스 2대가 출·퇴근 시간에 교직원들만의 통근용으로 전락하면서 학생들의 등·하교에도 학교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총무과에 따르면 현재 대학버스는 ‘대학 구성원들의 복지 향상’이라는 명목으로 국고지원을 받아 2대가 구입돼 운행되고 있다. 이 버스는 체협학습, 현지조사 등 학생들의 수업활동 지원과 교직원 출퇴근 시에 이용되고 있다.

현재 교직원들의 출퇴근 시 1대를 추가로 임대, 운행하고 있으나 오는 10일부터 임차(임대한 차량) 1대를 줄이고 대학버스만 이용해 운행할 예정이다.

‘등교 전쟁’이라 불릴 만큼 학교에 오는 것이 하늘에 별 따기인 아침시간에 교직원들은 봄비지도 않는 버스를 타고 가파른 학교 안까지 편안하게 출근한다.

반면 학생들은 아침시간 집중되는 대중교통 이용량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중고생들로 봄비는 아침 등교시간 시내버스는 ‘만원버스’가 되기 일쑤이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대학버스를 이용해 출근하는 교직원들과 달리 학생들은 별다른 이동권에

대한 혜택없이 매일 아침마다 만원이 된 시내버스를 타며 ‘등교전쟁’을 치르고 있다.

등교생이 집중되는 8시30분~9시 사이에 본교에 도착하는 버스는 총 17대 정도. 근처 고등학생들과 함께 이용하는 시내버스는 매번 ‘만원버스’ 상태로 도착한다.

이에 학생들은 교직원들과 똑같은 조건에서 등·하교를 할 수 있도록 학교 측이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김다비(식품영양1) 학생은 “교직원 통근버스가 있는데 학생들은 전혀 이용을 할 수 없다고 알고 있다”면서 “그러나 정작 아침시간 학교에 오는데 어려움을 겪는 건 대다수의 학생들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 이 학생은 “물론 쉽지 않을 것이라는 것은 알지만 장애학생들이나 저소득층 학생들에게 만이라도 보여줬으면 한다”며 “학생들의 원활한 아침 등교를 위한 학교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나영(관광경영1) 학생은 “교직원 통학버스는 운행되고 있는데 학생들을 위한 교통편의는 없는 것 같다”며 “등교시간, 옆에 있는

고등학생들도 함께 몰려 힘겨운 등교를 하는 학생들을 위한 조치도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총무과 관계자는 “저소득층 학생들의 경우 어느 선까지 허용을 해야 할 지 기준을 정하기가 힘들다”며 “기존의 잣대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학생들을 허용하기가 쉽지 않다”고 말했다.

또 “장애 학생들은 인원도 많지 않고 학교 측에서 당연히 편의를 봐줘야하는 상황이기엔 실행될 수 있도록 회의를 통해 검토해보겠다”라고 말했다.

학생 통학버스 도입에 대해서는 “학생들을 위한 통학버스를 운행하는 데에는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따른다”면서 “총학생회에서 교외 스쿨버스 도입을 추진 중인 것으로 있는데 만약 운행하게 된다면 학교 차원의 지원을 해 줄 수는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2학기에도 학생들은 힘겨운 등교를 할 것으로 예측되는 가운데 학교 측에서는 “아직 통학버스 운행에 대한 수요조사 계획은 없는 상태”라고 밝혔다.

김현숙 수습기자

예산편성 쌍두마차 의견 ‘충돌’

소통부재와 대화단절이 갈등 원인... 시스템 마련 계기로

대학본부와 평의회의 소통부재로 예산 심의·의결과정에서 균열이 나타나고 있다. 이는 양 기구간의 견제와 균형, 그리고 역할의 불분명성 문제로까지 번지고 있다.

현재 의결된 예산 내용 중 가장 쟁점 사항으로 오르내리는 것은 국제언어문화센터 상환금 문제다. 당초 국제언어문화센터는 열악한 발전기금으로 건물을 착공하기에 예산상의 부족함이 많은 점을 감안, 이를 해결하고자 건립금의 일부를 기성회 예산에서 2017년까지 9번으로 나눠 상환하기로 했다.

그러나 올해 본부가 편성한 예산안에는 이를 이번 해에 기성회 예산에서 모두 상환하는 것으로 바뀌어 편성됐다. 이에 대해 평의회에서는 우선적으로 처리해야 할 대학 예산 문제들을 먼저 증액하고, 상환금 문제의 경우 차후에 8대총장이 임용될 경우 재논의 할 것을 심의 후 예산을 감액했다. 그러나 기성회·이사회는 예산 심의기구인 평의회에 아무런 통보와 논의없이 국제문화센터 차입

금을 올해 중으로 지체없이 모두 상환하는 것으로 예산을 증액·의결했다.

기성회 이사회에서 의결한 2009학년도 예산안에 따르면 “국제언어문화센터 기채 상환금은 열악한 대학재정의 이자부담을 고려하여 학내 심의기구의 의견에도 불구하고 2009학년도 기성회게 예산확정 시 지체없이 상환(이자포함)하여야 한다”로 게시돼 있다.

이와 함께, 당초 재정을 담당하던 본부 측에서 국립대학 재정회계법안이 국회를 통과 할 경우, 기성회계라는 개념이 없어져 현 상환금을 갚을 주체가 사라지게 되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이에 대해 법정대의 한 교수는 “국제언어문화센터의 건립금 상환 문제는 그 효용성이 30년 이상 지속되기에, 그 건물의 사용자들이 나눠서 부담해야 한다”며 “현재의 기성회 예산에서 국제언어문화센터 상환금을 모두 지급했을 경우, 이번 해 등록금을 낸 학생들에게 돌아가는 피해가 많은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부영철 재정과 과장은 “현재 불용액으로 남은 기성회 예산은 지난해 대학구성원들의 절약과 사업유치로 대체한 사업비들이 많았기에 가능한 것”이라며 “현재 대학이 시급히 갚아야 할 부채를 두고 기성회의 예산만 늘린다면, 다음해의 등록금만 늘어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고영철(예결산분과위원회) 위원장은 “현재 우리대학에서는 학생 당 한해에 1권의 책도 사주지 못하고 있으며, 장학금 수혜의 경우에도 수지상의 내용과는 달리 실제 수혜자는 다 국립대에 비해 현저히 낮은 편”이라며 “올해 당장 예산을 지원받아 공학인증을 준비해야 할부분에는 예산을 감액하고, 무엇 때문에 교직원아파트 내 일부 교수들과 행정공무원들을 위한 임대료와 국제문화교류센터 상환금으로 모두 증액되어 어렸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부영철 과장은 “대학에서 객원교수나, 외부지역 공무원이 대학을 위해 머무를 경우 속

소를 제공해 주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임대금을 지급하게 됐다”며 “상환금의 경우에는 현재 한해에 1억 7000여만원에 달하는 이자에 따른 기회비용과 그 이자를 학생들에게 사용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에서는 이러한 문제가 평의회와 기성회 이사회의 역할과 규정의 불분명성, 서로간의 신뢰의 문제 회복이 급선무라고 이야기 하고 있다. 평의회의 규정과 기성회 규약이 사실상 연결되는 법안이 없으며, 현재 예산의 심의의결과 관련된 규정도 애매하다는 지적이 많다.

이에 대해 김길훈(회계학과) 교수는 “현재 예산부분의 심의와 의결에 대한 적절한 원칙이 부재한 상황임에 따라 양 기구간의 예산 증감액에 대한 견해차이가 심한 것”이라며 “예산의 편성과 의결 등에 관한 절대적인 권한을 부여하는 규정이 마련될 필요가 있으며, 이로써 서로가 올바른 견제와 균형을 갖춘 기구로 역할을 해야 할 것”을 제시했다.

박종건 기자

‘소리어울림 사업단’ 청소년 음악캠프 개최

찾아가는 음악회, 청소년 문화예술 멘토링도 진행



제주대 소리어울림 청년사업단이 지난달 23일 아라뮤즈홀에서 저소득층 가정 청소년을 위한 음악캠프를 열었다.

200여명의 저소득층 가정 아동

들을 대상으로 연 이 음악캠프는 음악교육과 수준 높은 공연 예술 체험을 통해 창의성 및 감수성을 개발할 수 있는 장이 됐다는 평을 받고 있다.

이번 캠프에 참가한 저소득층 아동들은 발성과 노래를 배웠으며 클래식 초창 공연, 성악프로그램, 한글인구(예술학부)교수 초청강의, 한국국제기아대학기구 소속 정하희씨의 아프리카 우간다 봉사활동 체험이야기 등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접할 수 있었다.

또 소리어울림 청년사업단은 오는 14, 28일에는 서귀포 재남보육원과 제일요양원에서 대중음악, 클래식 등 다양한 장르의 음악을 선보이는 ‘찾아가는 음악회’를, 20일에는 아라뮤즈홀에서 두 번째 ‘음악캠프’를 선보일 예정이다.

한편, 소리어울림 청년사업단은 지속사업으로 저소득가정 청소년들에게 1대1 음악교육을 진행하는 등 ‘청소년 문화예술 멘토링 사업’도 추진하고 있다.

문정화 수습기자

안전교육 실시

연구활동종사자 대상

시설과(과장 이영화)가 연구활동에 따르는 위험과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교육을 오는 7일 공과대학 3호관 1층 강당에서 실시한다.

이번 안전교육은 대학에서 근무하는 연구활동종사자(학부생, 대학원생, 연구원)를 대상으로 대학환경안전협의회와 연구개발인력교육원이 공동으로 준비했다.

대학의 연구실 안전을 도모하고 교육훈련을 통해 안전의식을 고취하기 위해 마련된 이번 교육은 지난 2006년부터 시행되는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 시행된다.

이에 앞서 시설과에서는 오는 6일부터 이틀간 연구실험실에 관한 안전사고 예방 홍보와 안전한 연구환경 조성을 위한 2009년 연구실안전 대학캠페인 행사를 연다. 한국에너지터링과 함께 준비한 이번 캠페인은 홍보물 배포와 사고전례 전시, 연구실 안전홍보, 설문조사 등의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교육방송국, KCTV제주방송 전파 탄다

KCTV제주방송에서 제공하는 디지털 VOD 서비스 ‘우리들 VOD’ 항목 란에 ‘제주대학교 교육방송국(JEBS)’ 항목이 신설되어 일반시청자들도 쉽게 JEBS방송을 볼 수 있게 됐다.

JEBS방송국은 2학기 때부터 교육방송국 홈페이지와 학내 자유게시판에 올라오던 JEBS 뉴스를 비롯

해 교육방송국에서 매주 자체 제작한 콘텐츠를 매주 KCTV VOD 서비스를 통해 선보일 예정이다.

이 방송은 KCTV제주방송의 디지털케이블 TV 신청자만 볼 수 있으며, 현재는 지난 5월에 열렸던 제7회 JEBS 영상제와 관련된 영상들이 올려져 있다.

여중생 WISE과학캠프 열려

제주대 WISE 제주지역센터가 지난달 28일부터 2일간 도내 여중생들을 위한 ‘2009 제주 WISE 과학캠프’를 운영했다.

WISE 과학캠프는 여중생들을 대상으로 과학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향후 이공계 분야 진출에 대한 동기를 유발하기 위해 준비된 캠프이다. 캠프의 프로그램은 여성과학자 초청 특강, 과학탐방, 천체교실, 과학탐구교실 등 4개 영역으로 구성됐다.

캠프에 참여한 황예령(14·제주동여중) 학생은 “평소 과학이 어

렵다고만 생각하고 별로 관심도 없었는데, 이번 기회를 통해 과학이 재밌는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고 밝혔다.

한편 이달 12일부터 이틀간 ‘2009 아열대 해양 과학캠프’가 해양환경연구소, 이호해수욕장 등에서 여중생들을 대상으로 열린다. 이 캠프는 아열대 해양생물에 대한 교육과 수영, 보트 체험, 윈드서핑 등 흥미로운 프로그램으로 진행된다.

고용희 수습기자

강지용 교수 “총추위 회의에서 교과부 압력”

자율권 수호대책본부 “반민주적·파행적 회의” 규탄

강지용 교수가 지난 3일 총장추천위원회의 교과부의 재선거만려 요청철회 결정사항에 대한 입장을 표명했다. 강 교수는 제주대학교 가족들과 제주도민 여러분께 드리는 글을 통해 총추위가 불과 5일만에 그 결의를 번복한 이유를 교과부 관료의 압박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강 교수는 “총추위 회의에 참석한 김관복 대학지원관이 총장임용 부적격 사유가 ‘공무원 겸직금지’와 영리행위 위반 이외에 다른 사실이 있는 것처럼 부정적 이미지를 풍겨냈다”며 “비열한 방법으로 회의참석자들의 판단력을 흐리게 한 것이며, 교과부 관리의 독선과 횡포를 목과 할 수 없었다”고 밝혔다.

그는 교과부 관계자가 “공석에서 재선 형성과정 의혹, 법률위반

과 사생활 문제까지 거론 했다”며 “총장부적격 판정을 내린것도 모자라, 다시금 파렴치범으로 몰아 부쳤다”고 지적했다.

뿐만 아니라 그는 “총장임용검증과정에서는 단 한번의 소명 기회도 주지 않았던 교과부가 총추위가 선거 실시 거부결의 하자마자 불과 5일만에 대학지원관을 직접 제주대에 보내는 정성을 보였는지 의구심이 든다”고 말했다.

아울러 “김관복 지원관의 말에 따라 재선형성과정, 가족관계, 범령위반,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부적합 결정을 내렸다고 하면서 사생활 문제까지 거론 했다”며 “김관복, 대학지원관이 이에 대해 공개 사과를 하지 않는다면, 저의 명예회복을 위해 허위사실 유포 등의 명예 훼손으로 부득불 고발 조치를 할 것”이라고 분명한 입장을

표명을 요구했다.

또한 이날 오후에는 자율권수호대책본부가 ‘총장임용추천위원회의 반민주적 회의의 진행방식과 결과를 강력히 규탄한다’의 입장을 냈다.

자율권수호대책본부는 “총추위원장의 반민주적 회의진행방식을 강력히 규탄한다”며 “회의에서 다룰 안건까지 총추위원장이 독단적으로 정할 수 있는 것인지 우리는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물었다.

이와 함께 이러한 결과에 대해 “우리가 아는 한 총추위원장은 교과부 관계자와 직간접으로 긴밀한 소통을 해온 것으로 안다”며 “이번 총추위의 결정이 총추위원장과 교과부 관계자가 합작하여 만들어낸 반민주적이고 파행적인 회의의 진행의 결과”라고 비판했다.

박종건 기자

허민자 교수, 제자와 함께하는 정년퇴임전

‘제자들과 함께하는 허민자 교수 정년퇴임 기념전’이 지난달 31일부터 5일간 제주문화회관 제1,2전시실에서 열렸다.

이번 기념전은 올해 8월을 마지막으로 강단을 떠나는 허민자(문화조형디자인전공) 교수의 정년퇴임을 기념하기 위해 산업디자인학과를 졸업한 그의 제자들이 추진한 것이다. 기념전에는 허 교수의 대표작품인 〈기도〉, 〈함께하는 여정〉 등과 제자들의 작품도

함께 전시됐다.

허 교수의 제자이자 산업디자인학과 1회 졸업생인 박선희(도자공예전공) 작가는 자신이 수업을 받던 시절을 회상하며 “교수님은 마치 친근한 고모처럼 학생들을 편하게 대해주셨던 분”이라며 “교수님에게 감사의 마음을 담아 제자들이 심심일만으로 정년퇴임 기념전 사업비를 모았다”고 말했다.

허 교수는 “제자들과 함께 가마

를 만들고 도자기를 굽던 시절이 생각난다”며 “이번 기념전은 그 시절 함께 추억을 쌓아간 제자들과 즐거운 이야기를 나눌 기회가 됐다”고 말했다.

한편 허 교수는 1975년 미술교육과 교수로 처음 제주대 강단에 있으며 1988년에 산업디자인학과가 설치된 후, 초대 학과장을 역임했다.

고용희 수습기자

축산분뇨 이용한 에너지사업 합작투자 설립협약

제주대학교가 축산분뇨를 이용한 에너지개발 사업에 합작투자 설립협약을 체결했다.

지난 6월 본관 회의실에서 진행된 협약 체결식은 발전기금 전달식과 함께 이뤄졌다.

체결식에는 세계적인 글로벌 다국적 기업인 카길 애그리 퓨리나(대표 이보균)가 참석해 제주축산바이오설립 사업지원에 대한 발전기금 50만불을 제주대에 기탁했다. 제주대가 외국계 글로벌 기업

으로부터 발전기금을 받기는 이번이 처음이며, 신재생에너지 분야에 투자하기도 처음이다.

이번 사업은 제주특별자치도와(주)유니슨, 영농법인과 함께 제주도에 맞는 바이오 공장을 만들어 정상적으로 축산농가가 가동을 목적으로 추진된다.

이번 축산분뇨 에너지개발사업은 제주도 축산 농가들의 분뇨처리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주식회사 영농법인 제주축산 바이오’공

장을 세워 분뇨처리과정에서 전력을 생산하고 액상비료를 만드는 녹색성장의 취지에 맞게 추진하는 사업이다.

이번 사업을 위해 제주특별자치도 6억, (주)유니슨 3억, 영농법인 2억, 제주대는 1억원이 투입됐으며 현재 한림읍 상대리에 공장 부지를 정해놓고 8월 중순까지 공사가 체결될 예정이다.

김현숙 수습기자

기초과학지원연구원 과기단지로 이전

우리대학 캠퍼스에 설치된 기초과학지원연구원 제주센터가 2010년 3월 제주시 아라동 제주대 인근에 들어서서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로 이전한다.

김대경 기초과학지원연구원 팀장(해양바이오연구팀)은 “제주

대가 이전은 하지만 학교와의 연계성은 유지될 것”이라며 “25개 이상의 기업들이 과기단지로 입주하면서 제주대 학생들에게 많은 교육의 장과 기회가 마련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김도연 수습기자

야간 학생들 강의선택 폭 좁아 불만 취업 돕는 셀프면접기 도입

21개 교양과목 불과... 주간 475개 강의와 대조

시뮬레이션 면접 무료 체험 가능

본부 "희망조사 통해 과목 개설"

야간대학 학생들이 교양과목을 선택할 때 학생들의 수강의사나 선택권이 반영되지 않아 '수업 선택권 제한 논란'이 일고 있다.

학사관리과에 따르면 올해 2학기 야간대학 학생들이 선택할 수 있는 교양과목은 21가지다. 주간에 다니는 학생들이 475가지의 교양과목 중 선택할 수 있는 것과 큰 차이가 난다. 더구나 21개 과목은 학사관리과에서 강의 여건과 전학기의 수강인원 등을 고려해 개설한 것이다. 학생들의 수강의사나 선택권은 반영되지 않은 것이다.

이런 문제에 대해 학사관리과 관계자는 "야간대학 학생들도 주간에 교양과목 3과목을 이수할 수 있게 하는 등 수업 선택권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또한 "학생들이 반드시 이수해야 하는 영역별로 교양과목을 개설했다"며 "야간대학 학생들이 교양과목을 이수하는데 불편하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야간대학 학생들은 수업 선택의 폭이 좁아 불편을 호소하고 있다. 김진선(야간경영1) 학생은 "영역별 필수로 이수해야 되는 과목이 개설되지 않지만, 개설된 과목이 몇 개 되지 않아 선택의 폭이 너무 좁다"며 "듣고 싶지 않은 과목도 학점을 채우기 위해 어쩔 수 없이 들었던 적이 있다"고 말했다.

주간 학생의 경우 다양한 과목에 수강신청을 할 수 있고, 학생들

의 신청 인원이 적으면 자동으로 폐강이 돼 결과적으로 학생들이 희망하는 과목만 개설이 된다. 즉 따로 희망 과목 조사를 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다수가 희망하는 과목만 개설되는 것이다. 그러나 야간대학 학생들의 경우, 선택할 수 있는 과목이 워낙 한정돼 학생들의 희망대로 과목이 개설되지 않는다.

이에 대해 학사관리과 관계자는 "지금까지 희망 과목 조사를 해본 적은 없지만 야간대학 학생들을 위해 꼭 필요할 것 같다"며 "다음 학기 교양과목 개설 시에는 희망 과목 조사를 하고, 조사한 과목을 개설할 수 있다면 개설하는 방향으로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고용희 수습기자

취업 준비생들이 취업시 필요한 면접을 스스로 연습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1대1 셀프면접기' 시스템이 직업능력개발원(이하 직능원)에 설치돼 곧 운영된다.

직능원은 이력서와 자격증에 치우쳐 있는 취업 준비생들에게 실전처럼 면접을 볼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셀프면접기 1대를 직능원 내에 설치했다. 셀프면접기는 빠르면 8월초에서 늦어도 2학기 개강일부터는 운영될 예정이다.

무엇보다 체험할 수 있는 셀프면접기는 면접모습을 녹화할 수 있는 카메라가 부착돼, 이용자가 자신의 정보를 입력하면 실전과 같은 '시뮬레이션 면접'을 체험할 수 있다.

이 셀프면접기에는 2000여 개의

업체별 질문들이 입력돼 있으며, 이용자는 자신에 맞는 관련분야를 선택하여 그에 알맞은 면접을 볼 수 있다.

면접은 대략 10~15분 정도가 소요되며, 이 면접과정은 셀프면접기에 녹화돼 USB로 저장가능하다. 또한 면접이 끝난 후 녹화분을 통해 평가요청으로 들어가 전문가에게 목소리, 표정 등을 체크받을 수도 있다.

직업능력개발원 관계자는 "취업할 때 마지막 과정인 면접시험에서 많은 학생들이 탈락되는 것을 고려하여 전체적인 지원을 해보자는 취지에 설치됐다"며 "많은 학생들이 찾아와 이 시스템을 이용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문정화 수습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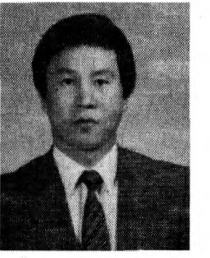
제주대 단신

한성우 신임 사무국장 임명

사무국장에 한성우씨(고위공무원)가 지난달 22일자로 새롭게 임명됐다.

약력은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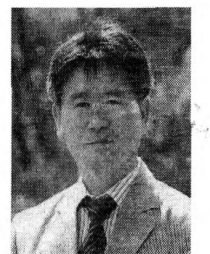
△70년 마산고등학교 졸업
△75년 육군사관학교 졸업
△87년 부산대학교 행정학사
△89년 미국, 오하이오대학 교육행정학사
△81년 행정사무관 △95년



서기관 △04년 부이사관 △일 반직고위공무원.

김세재 교수 일본학술지원과학자 선정

김세재(생물학과) 교수가 일본 학술진흥회(JSPS)가 국제협력연구를 촉진하기 위해 시행하는 인력교류사업인 '2009년 일본 학술진흥회 초빙 과학자 사업'의 수혜자로 최종 확정됐다.



이 사업은 한국과학재단과 일본 학술진흥회(JSPS)가 국제협력연구 촉진을 위해 시행하고 있는 인력교류사업이다. 이에 따라 김 교수는 일본 정부의 지원을 받으며 일본 류큐대학 열대생물연구소에서

6개월간 '어류의 산란주기 등 조에 있어 환경적 요인의 역할'과 오키나와와 제주도해양 생물산업의 비교연구'를 주제로 일본의 연구진들과 국제협력 연구를 수행하게 된다.

체육진흥센터, 특수분야 직무연수

체육진흥센터(센터장 임관철 체육학부 교수)가 2009년도 특수분야 직무연수를 실시했다.

이번 연수는 전국의 선생님들에게 레저 스포츠의 최첨단 제주도를 알리고 제주대학교를 홍보하고자 교육청에 신청해 이뤄졌다.

연수 대상자는 전국 초, 중,

고 교원 및 교육 전문직 모두가 포함됐다. 수업은 이론과 실기를 병행했다. 골프과정은 제주대학교 내 골프아카데미에서, 스킨스쿠버 과정은 제주시 해안도로변 및 이호해수욕장 부근에서 진행됐다. 연수 참가비용은 각 해당 지역 교육청에서 일부 지원해 1인당 23만원이다.

제3회 JDC해외인턴십 업무협약

제주대학교와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이하 JDC, 이사장 변정일)가 지난달 17일 JDC 9층 대회의실에서 국제자유도시가 요구하는 국제적 감각을 갖춘 글로벌 인재육성을 위한 'JDC 제3회 대학생 해외인턴십' 공동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식을 가졌다.

이 날 협약식에서는 공동업

무협약을 체결한 JDC가 '제3회 대학생 해외인턴십' 사업 추진을 위해 1억원의 경비를 지원하기로 했다.

또한 해외인턴십 준비 및 운영의 촉발, 해외 어학연수 대학 및 인턴대상 기업 설의 등 연수단 활과 관련된 전반적인 사항을 상호협의를 통해 추진하기로 했다.



장수정 학생, 전도논술대회서 대상 국어국문학과·국어문화원 공동 주최

'제8회 전도 고등학생 논술 경시대회'가 지난달 17일 인문대학 세미나실에서 열렸다.

이 대회는 제주도 고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개인의 삶이나 사회 속에 숨겨진 제반 문제들을 논리적으로 제기하고 그것의 바람직한 해결 방안을 모색하게 하는 글쓰기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국어국문학과와 국어문화원이 공동으로 주최했다.

이 날 대회에서는 도내 12개 고등학교 220여명의 학생들이 참여해 열띤 경연의 장을 가졌다.

다음은 수상자 명단이다. △대상= 장수정(신성여고 3) △금상= 문수환(제주외고 2), 현승아(제주중앙여고 3) △은상= 김진석(제주제일고 3), 윤동환(서귀포고 3), 김숙희(제주중앙여고 3) △동상= 부다운(제주사대부고 3), 김리은(제주사대부고 3), 박종원(서귀포고 2), 고지연(제주여고 2), 장지웅(남녕고 3), 문한결(남주고 2), 강승현(제주제일고 2), 문지영(제주중앙여고 3), 강나래(제주중앙여고 3), 송나미(서귀포여고 2).

강보배 수습기자

중앙도서관 주변 "편의시설 부족해요"

야간과 휴일에 중앙도서관을 이용하는 학생들을 위한 매점 등 편의시설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중앙도서관 열람실은 방역일과 대청소를 하는 날을 제외하고 제1열람실과 제2열람실은 자정까지 개방하고 있으며, 제3열람실은 항상 개방하고 있다. 이와 달리 도서관을 이용하는 학생들의 편의를 제공할 시설은 부족한 상황이다.

현재 마련된 시설은 뒤편에 마련된 야의 휴게실이 전부이며, 그곳 또한 음료수 자판기 5대와 커피 자판기 4대만 배치돼 있는 실

정이다. 또 주말 및 공휴일 오후 6시 30분 이후에는 각 단과대학매점을 비롯한 학내 거의 모든 매점도 문을 닫는다.

이런 이유로 주말이나 야간에 학생들은 후문이나 정문 등 먼 거리를 이동해 물품을 구입하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

오선경(영어영문학과 4) 학생은 "식사나 먹을 거리를 해결하기 위해 후문에 다녀오면 소비되는 시간이 길다"며 "주변에 매점을 설치해서 열람실과 같이 운영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박샘(사회교육과 3) 학생 또한

"과자자판기와 같은 간편히 먹을 거리를 제공해주는 기계들을 도서관 야외 휴게실에 배치해 달라"는 의견을 내놓았다.

이에 대해 소비조합의 한 관계자는 "과자 자판기 같은 경우는 자판기의 용량과 관리 문제로 어려움이 있다"며 난색을 표했다. 그러나 매점 설치 문제에 관해서는 "현재는 공간문제로 어려움이 있지만 새롭게 신설되는 건물에 매점을 배치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강보배 수습기자

체육학부 나눔 바자회 열어

제주대학교 체육학부 학생들이 지난달 5일 시청 어울림마당에서 '희망 나눔 자선바자회'를 개최했다.

제주 사랑의 열매(회장 박찬식)와 협력한 이번 바자회에서 체육학부 학생들은 세탁소에서 1년 이상 주인이 찾아가지 않아 버려거나, 기부하게 되는 옷과 의류업체

의 제고물품 등을 지원받아 시민들을 대상으로 판매했다.

이를 통해 생긴 35만여 원의 수익금은 '제주대학교 체육학부' 이름으로 지난달 7일 제주 사랑의 열매에 기탁됐다.

양하선(체육학부) 여학생회장은 "바자회를 개최하면서 수익금의 액수보다는 참여에 의미를 뒀

는데 생각보다 시민들이 많이 참여하고 격려해주셔서 힘이났다"며 "거스름돈을 받지 않으시거나 물건을 사지 않아도 설치된 모금함에 그냥 모금을 하고 가시면 분들을 보며 아직도 우리 사회는 따뜻하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다.

김현숙 수습기자

공개 질의서

-총장, 기성회 이사회 임원진 및 재정과장님께

시의적절하게 대처한 재정과장님의 해명서를 읽고, 평의회 예 결산분과위원으로서 총장(총장직무대리)과 기성회 이사회 임원진 그리고 재정과장님께 몇 가지 질문을 올립니다.

일단 예결산소위원회에서 예산을 증액하게 된 배경에 관한 사유를 첨부파일로 올리니 읽어보시고, 제차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총장(총장직무 대리)은 교직원들을 대표하는 기성회 당연직 이사이다. 우리대학의 최고 심의기구인 평의회에서 심의 의결한 예산안의 중요한 내용들이 기성회 이사회에서 삭제/삭감되는 것을 지켜보면서 학교의 대표로서 어떠한 비판적 역할을 했는가?

2) 총장(총장직무 대리)께서 예결산분과 위원회에서 약 2주에 걸친 심의 끝에 확정된 예산안에 대하여 평의회 의장 또는 예결산위원회에 구체적인 설명도 한번 들어보지 않고 가장 중요한 예산안의 일부를 대폭 삭감/삭제시켜버렸다. 그 연유에 대하여 설명해주기 바란다.

평의회 규정 제10조(심의사항) 1호(마)목은 기성회 예 결산 사항을 평의회가 심의하고, 제12조(심의사항 통보)는 심의사항을 총장이 학교 운영에 반영하며, 제13조(재심요청)는 만일 총장이 평의회 심의에 이의가 있을 경우 통고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서면으로 사유를 붙여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고 재의결 규정을 두고 있다.

이러한 절차를 완전히 무시하고, 총장(총장직무 대리)은 평의회에서 심의 확정된 예산안의 중요 부분을 대폭 수정해 버린 이유는 무엇인가?

3) 기성회 규약 제1조(목적)에 따르면, 기성회에는 "국가의 부담으로 미치지 못하는 긴급한 교육시설과 학교 운영 등을 지원함으로써 면학분위기 조성하고 교육여건 개선에 기여하기 위해, 사용하도록 되어 있다.

평의회 예 결산위원회에서는 이러한 목적 달성을 위해 각종 자료를 토대로 학생들의 면학분위기 조성하고 교육여건 개선을 위해 가장 필요하면서도 시급하다고 생각되는 장학금(약 4억 1천4백여만원)과 도서관(3억) 그리고 학생들의 취업지도를 위한 활동비(2억) 등을 증액시켰다. 특히 이 예산들은 학생들의 학업과 진로 설정을 위해 아주 필요한 예산들이다.

그런데 학부형들을 대표해서 기성회 예산안이 얼마나 타당하게 집행되고 있는지 심의 감독해야 할 기성회 이사회가 12명의 교수들이 2주 동안, 하루 평균 6시간씩 소비해 가며, 가장 중요하게 심의 확정된 장학금(전액 삭감)과 도서관(3분의 2 삭감) 등을 대폭 삭감/삭제해 버렸다.

그 이유는 무엇 때문인가?

여러분의 자녀들 가운데 현재 제주대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이 없기 때문인가? 아니면 여러분의 자녀들이 새로운 책으로 더 열심히 공부하고 더 많은 장학금을 받는 것을 원치 않기 때문인가?

여러분의 결정이 대학발전과 학생들을 위해 심도 있게 논의하여 타당하게 내린 것인지, 아니면 특정 부서의 일방적 설명만 듣고 내린 것인지를 숙고해주시기 바란다. 특히 군인들에게 총 같은 무기가 필수품이듯이 학생들에게 없어서는 안 될 최고의 무기는 책이다. 여러분들이 삭감한 예산이 학생들에게는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알고 있는가?

4) 우리대학 학생들 가운데 많은 학생들이 가정 형편상 등록금을 마련하지 못해 휴학을 하거나, 학자금 대출 이자도 제대로 갚지 못해 신용불량자로 내몰리고 있다는 내용의 뉴스가 지난 4월 중순경 도내 언론에 보도된 적이 있다. 이러한 학생들의 학자금 대출 이자를 줄여 주기 위해 제주도 등에서는 대학생 학자금 이자 지원 조례안을 입법 예고해 놓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학생들이 낸 기성회비로 이들을 도와주지 못할망정 BTO교직원 복지아파트에 입주한 일부 교수들과 고위 행정공무원들의 아파트 임대료로 일년에 수억원을 몰아주고 있다. 이게 우리대학 복지 정책의 한 단면이다. 어떻게 학생들이 낸 기성회비로 일부 교직원들의 아파트 임대료를 대신 몰아줄 수 있는가?

기성회 이사회에서는 왜 이렇게 기성회내의 내용은 예산은 '삭감/삭제'하지 않았는가? 이런 예산을 삭감해 학생들의 장학금을 올려주고 일년에 학생 1인당 책 한권씩 더 사주겠다고 하는데 왜 안 된다고 하는 것인가?

특히, 평의회에서 BTO 교직원 아파트에 사는 기금주자에 대해서는 계약기간동안 기성회에서 지원하도록 결의했고, 앞으로는 2010학년부터 채용되는 신규 교직원에 대해서는 기성회에서도 임대료를 지원할 수 있도록 결정했다. 이에 대한 기성회 이사회 임원진의 의견은?

5) 2008학년도 기성회비 세입/세출을 보면, 세입 결산액 540억6천만원 중 사과기입액(9억 2천만원)을 제외하더라도 52억 6천만원이 불용액으로 처리되었다. 이중 학생들이 납부한 기성회비 세입 결산액은 3백42억4천만원으로 전체 세입액의 63.3%를 차지하고 있다. 즉, 52억 6천만원 중 63.3%인 33억 3천만원이 학생들이 납부한 기성회비 불용액이라는 결론이다.

이 금액을 학생 1152명(대학원 포함)에 합당하면 1인당 29만원(물론 대학마다 기성회비가 달라 비율 조정은 필요하지만) 들어간다. 이렇게 쓰지 못해 남아도는 예산액을 들떠 재정과: 27% / 교수지원과 3%를 갖고 예결산위원회에서는 학생들의 부족한 장학금과 중앙도서관 도서 구입비를 증액하거나 학생들의 취업지도를 위한 활동비 항목을 신설하였다.

이런 결정이 어떻게 잘못되었는지 총장직무 대리와 기성회 회장님께서 설명해주시기 바란다. 특히, 재정과장은 이를 예산을 삭감한 이유로 우리대학 재정이 열악하기 때문이라고 강변하고 있다. 이 불용액을 보고도 그런 답변을 할 수 있는가?

6) 재정과장은 2008년 학무회의, 평의회 등에서 9년간에 걸쳐 상환하도록 이미 결정된 <국제언어문화교육센터 건립 차입금(이자 상환 포함)>을 올해 내에 꼭 갚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 이유는 무엇 때문인가?

그리고 평의회에서는 '국제 언어문화교육센터 건립 차입금, 상환과 관련, 교수회장이 성명서를 통해 문제를 제기한 바가 있고, 이에 대해 전 총장님께서 전자 게시판에 올린 글을 통해 교수회장님에게 자신을 법적으로 고발하라고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예산을 편성하되 상환시기를 잠시 뒤로 늦추고 8대 총장이 취임한 이후 차입금 상환에 대한 구체적 계획안을 마련하여 평의회 안건으로 상정하기로 결정하였다.

그런데 기성회 이사회에서는 이를 묵살하고 '국제 언어문화교육센터 건립 차입금, 을 2009학년도 기성회예산에서 지체없이 전액 상환하도록 결정했다.

기성회 이사회에서 이러한 결정을 내린 이유는 무엇 때문인가?

7) 기성회 이사회에서는 평의회에서 심의 확정된 예산안을 적절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중요한 부분을 완전 뒤집어 버렸다.

이 과정에서 대학 관계자들이 어떠한 역할을 했는지 알아보기 위해 기성회의 회의록(녹음테이프 포함) 등을 공개해 줄 것을 재정과장에게 요구했지만 이를 묵살하고 있다.

그 이유는?

8) 평의회는 지난 7월 22일 평의회 심의 결과와 배치된 기성회 예산안이 확정된 것을 보고 이를 안건으로 다룰 긴급 평의회를 개최했다.

평의회에서 심의 확정된 예산안이 대폭 수정된 이유를 알아보기 위해 회의석상에 총장(총장직무 대리)과 재정과장이 출석해 설명해줄 것을 요구했다. 그런데 두 분 다 참석하지 않았다. 그 이유는 무엇 때문인지 설명해주기 바란다.

2009년 7월 29일

평의회 예 결산 분과위원 일동

재선거 여부 대학구성원 직접 투표로 결정

“관선총장은 막아야”... 공직협, 조속히 대학정상화 이루길

강지용 교수, 교과부결정에 행정소송

대학 자율화 위해 법적투쟁 선택

교육과학기술부(이하 교과부)의 재선거 요청을 반려 했던 총장추천위원회(이하 총추위)가 지난 28일 재선거 반려 철회를 발표하고, 대학구성원들에게 재선거의 여부를 묻는 선거를 시행하기로 해 총장임용과정이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 이런 가운데 그동안 강경한 입장으로 교과부에 대응했던 총추위가 무엇 때문에 변화 하였는지에 대한 궁금증도 증폭되고 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지만, 총추위가 종전의 회의 결과를 번복하고 교과부의 재선거 요청을 재검토하게 된 이유는 시급한 대학정상화와 미래를 위해 최선의 선택을 해야 한다는 학내외의 여론 때문인 것으로 해석된다. 현재 대학에서는 총장임용지연으로 대학의 이미지, 교육분위기 조성 등의 다양한 측면에서 문제를 거친 선거 결과에 승복하지 않고 투서나 진정을 한 교직원들이 있다면 스스로 그 책임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지만, (투서나 진정)이 현 사태의 원인이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다”며 “투서나 진정이 없다 해도 교과부의 검증과정에 프로빌 결격문제가 제기될 것이었기에, 원인을 투서나 진정에 있다고 보는 교직원이 있다면 ‘납의 탓’에 지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또 공직협은 “현재 교육공무원법 제24조에 따라 대학의 장을 교과부에 3개월 이내에 추천하지 않았기 때문에 8월1일부터는 교과부의 결정에 따라 언제든지 관선총장을 임명할 수도 있다”며 “총장임용 1순위 후보자가 제기한 소송이 10월경에 선고 결과가 나온다 해도 항소가 이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교수

회와 총추위의 행위는 결과적으로 교과부에 관선 총장 파견이라는 칼자루를 내준 형국”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자율권수호를 위하여 대학의 정상화를 외면하고 관선총장을 불러들인다면, 교수회와 총추위는 스스로 그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며 “총추위는 대학이 정상화를 이룰 수 있도록 조속히 재선거 실시를 결정하여 관선총장 파견을 막는데 적극 앞장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와 함께 총추위가 결정한 사항을 변경하게 된 직접적인 이유가 교과부의 관선총장 발인 때문이라는 이야기도 설득력을 얻고 있다. 지난달 28일 교과부는 제주대에 재선거 일정 확정을 요청한 ‘총장임용후보자 직권 제정 계고장’을 보내왔다. 이 계고장은 8월 17일까지 재선거 일정을 확정하지 않을 경우, 관선총장 임명이 불가하다는 내용이 골자였다. 뿐만 아니라 교과부 소속의 김판복 대학지원국장이 총추위 긴급회의에 참석해 강 교수의 인사검증과정과 총장임용제정 부적합 사유를 설명하기도 했다. 또 김 국장은 회의에 참석해 재선거 실시 사유 50일이 지났음에도 재선거일을 확정하지 않은 점을 지적하며, 기한을 지키지 못할 경우 교육부장관의 총장임용제정이 이뤄질 것을 재차 강조했다.

이에 대해 총추위원장은 긴급회의를 마치고 나서 “지난 회의에서 결정한 교과부 총장임용후보자 반려 거부 사항을 철회 하기로 했으며, 그 여부를 대학구성원에게 묻는 투표를 진행할 것”이라며 이러한 번복의 이유는 “총추위의 결정을 대학본부로 보냈지만 재추천 반려 거부는 총추위의 권한이 아니라는 답변과 이번 회의에 참석한 교과부 인사가 재선거를 미시할 경우 생길 수 있는 결과에 대해 충분히 설명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렇듯, 공직협의 성명서 발표에 이어 총추위 의원들의 입장의 변화는 대학구성원들이 현재의 상황에서는 재선거를 치를 수밖에 없다는 여론이 반영된 것으로 해석된다.

대학구성원들은 관선총장을 최후의

카드로 내 놓은 교과부의 처사는 개탄할 일이지만 재선거 미시로 파생될 문제만은 우려하고 있는 상황이다. 강 교수가 총장임용후보자로서 자질문제가 있고 없고를 떠나서, 교과부의 의도에 맞는 관선총장 파견만은 막아야 한다는 이유에서이다.

이에 따라 교과부 결정에 불복하고 법적투쟁을 나서겠다는 강지용 교수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지난달 22일 강 교수는 기자회견을 통해 “이번 사태에 대한 정의로운 판단을 사법부에 맡기기로 판단, 지난달 8일 서울행정법원에 교과부장관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시작했다”며 “이번 법적투쟁이라는 선택은 대학의 자율화와 대학의 미래를 위한 순수한 결단이었음을 널리 양해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는 강 교수가 대학의 민주화를 지키는 것이 대학의 발전을 위해 진정 필요한 것이라고 역설하는 것이다. 또 한편에서는 강 교수가 법적소송까지 가는 이유로 현재의 상황이 익명하고 허구의 진정서와 투서로 시작된 만큼, 법적인 소송을 통해 잘못들을 모두 가리겠다는 의중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기도 한다.

그렇지만 이에 대해 교과부는 임용제정 행위 자체가 법적인 근거를 떠나 교과부의 재량행위이기 때문에 행정처분 대상조차 되지 못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지난달 23일 본관 2층 회의실에서 총장추천위원회 회의가 열렸다. 총추위는 이날 교과부의 재선거 요청을 반려한 뒤, 28일 다시 그 결정을 번복했다.

그럼에도 대학 내의 분위기는 강 교수의 결격행위 문제가 총장임용후보자로써 결격 사유인지에 대해서는 애매한 입장을 표하고 있다.

법정대의 한 교수는 “교과부의 총장임용에 대한 기준이 무엇인지 모르겠지만, 프로빌 이사직 결격문제가 총장임용거부할 정도로 불법적인 사항인지는 의문이 든다”고 말했다.

이에 따르면 강 교수의 법적인 투쟁은 보는 시각에 따라 결과가 다를 것이며, 현 사태의 본질적인 문제는 불명확한 교과부의 제정권 권한과 대학의 고도의 자율성에 의한 선거를 통한 대학 민주주의가 충돌되고 있는 상황인 것이다.

이에 대해 한 법률전문가는 “교과부가 총장임용에 대한 재량권을 가지고는 있지만, 그 권리도 어떠한 원칙없이 마음대로 휘둘러 수는 없는 것”이라며 “어떠한 법적기준을 대느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거부이유가 프로빌이사 결격행위라면 소송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고 말했다. 또 강 교수가 승소할 경우에는 “원칙상으로 재선거로 뽑힌 총장이 자리를 떠나야 하겠지만, 승소한 측의 압력과 그 때의 대학의 상황에 맞춰 재선거를 통해 임용된 총장이 결격사유가 없고, 대학운영을 잘해오고 있다고 법원이 판단할 경우에는 그 직이 유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종건 기자

총장임용사태-학내 분위기는?

“대학 정상화가 가장 시급”

총장임용사태로 교육과학기술부와 대학간의 신경전이 팽팽한 가운데 대학 구성원들은 빠른 시일 내 정상화되기를 바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범대 모교수는 “총장임용이 지연되고 있는 상황에서 학교가 많이 들떠있어 학생들에게 교육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기 힘들다”며 “교과부에서 관선총장을 내려 보내겠다는 압박은 하루빨리 우리학교가 정상화를 찾으라는 의미인 것 같다”고 말했다. 또 한 교직원은 “제주대 출신으로서 총장임용이 지연되는 것에 대해 마음이 안 좋다”며 “학교와 학내구성원들을 위해 재선거를 실시하는 쪽으로 총장이 임용되어 빨리 정상화되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학생들의 의견도 빠른 시일 내에 학교가 정상화 돼 안정을 찾고 방안을 강구하여 관선총장만을 막자는 목소리를 냈다. 문지현(중어중문 2)학생은 “총장임용사태에 대해서

학생들의 의견을 학교에서 반영해줬으면 좋겠다”며 “우리 학생들의 대표나 마찬가지로 총학생회는 우리에게 총장선거에 대한 정보를 알려줘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학생들은 관선총장이 내려오는 것에 대해서는 교수, 교직원과 마찬가지로 반대 의견을 내놓았다.

한성은(법학부 3) 학생은 “관선총장이 내려오는 사례가 국립대에서는 통합 전 제주교대가 처음인데, 관선총장이 내려오면서 학생들의 의사가 무시되는 것을 봤다”며 “관선총장은 우리 구성원들의 의견이 반영된 투표 없이 내려온 사람이기 때문에 제주대의 대표자로서 자격이 부족하다”고 말했다.

이신혜(정치외교 3) 학생은 “관선총장이 내려오게 되면 법인화 문제와 함께 등록금인상문제도 제기 될 것”이라며 “관선총장은 정부의 지시만 따를게 당연하고 제주대가 필요로 하는 걸 잘 알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정화 수습기자

총장임용사태-도내 분위기는?

총장 사태 대학 이미지 손실로 이어져

많은 도민들이 현재 제주대 총장임용사태에 대해 우려의 마음을 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민들은 이번 총장임용지연사태가 자칫 대학이미지 실추로 이어지지 않을까 걱정하는 반응이다. 총장임용사태로 제주대가 자칫 권력싸움에 내부갈등이 심해지는 모양새로 비춰지는 것에 대한 비판의견을 보였다. 이에 도민들은 대학구성원들이 이번 총장임용사태를 조속히 해결해 내부갈등을 봉합해야 한다고 입을 모아 주문했다.

건입동에 사는 한 주민은 “충분히 재선거를 할 수 있을 텐데 1순위 후보자 입장에만 귀를 기울이는 것 같다”며 “얼마나 대단한 자리에 이런 사태가 일어나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한 회사회원은 “제주지역의 하나뿐인 국립대로서 관심을 갖고 있었는데 총장임용과문이라는 문제가 생겨 참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1순위 후보자가 행정소송을 한 것은 개

인의 입장으로 대학의 이미지를 손상시킨 것 같다”고 말했다.

또 김상진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제주지부장은 이번 사태에 대해 “만약 관선총장이 내려온다 해도 구성원의 통합은 쉽지 않고, 긍정적인 면보다는 부정적인 면이 많을 것”이라며 “교과부에서 다시 한 번 생각을 하고 제주대구성원과 깊이 있는 대화를 통해서 풀어나갔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한 도내 언론기자는 “이번 총장임용사태가 도민사회를 혼란하게 했다”며 “대학의 목소리를 내는 총장임용추천위원회나 교수회라는 기구에서 객관적인 목소리를 내지 못하는 것 같다”고 학내구성원의 의견수렴이 부족했다는 점을 지적했다. 또 “만약 재선거를 하지 않아 관선총장이 내려오면 제주대가 법인화의 첫 단추를 푸는 것”이라며 “제주대의 결정이 지역사회를 위한 중요한 결정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도연 수습기자

제주대, ‘교육역량강화사업’ 2년 연속 ‘전국 1위’

올 한해만 41억 2,900만원 지원 확정

제주대학교가 또 ‘일’을 냈습니다. 제주대학교는 ‘교육과학기술부’가 선정하는 “2009년 대학 교육역량강화사업”에서 재학생수 5,000명 이상 10,000명 미만 4년제 대학 가운데 ‘전국 1위’를 차지함으로써, 올 한해만 41억 2,900만원을 지원받게 되었습니다.

제주대학교는 지난해인 “2008년 대학 교육역량강화사업”에서도 재학생수 5,000명 이상 10,000명 미만 4년제 대학 중 ‘전국 1위’를 차지, 8억 4,000만원을 받은 바 있습니다.

교육과학기술부가 주관하는 이 사업은 참여정부 시절의 ‘지방대 혁신역량강화사업(NURI)·수도권 특성화사업’을 통합한 것으로, 취업률·재학생 충원율·국제화 수준·전임교원 확보율·1인당 교육비·장학금 지급률을 객관적·정량적으로 평가해 선정하는 사업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제주도민 여러분들의 성원과 격려로 이뤄졌습니다. 도민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J JEJU



학문, 진리, 탐구



햇불, 정의
[교육·연구·봉사]

1952 개교년도



Universit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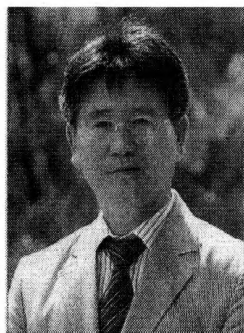


제주대학교
JEJU NATIONAL UNIVERSITY

◆ 한일 국제협력 연구 소개-어류의 산란주기 동조에 있어 환경적 요인 역할

제주 연안 어족자원 보존 연구에 중요한 자료

오키나와와 제주도 해양생물의 비교 연구... 인간 질환 예방에도 유용



김세재 생물학과 교수

시간을 알려주는 생물시계는 모든 생물체의 유전자속에 새겨져 있다. 세포는 모든 생물체를 구성하는 기본단위로 시간을 알려주는 능력도 가지고 있으므로 실로 경이적인 진화의 산물이다. 지구는 24시간 마다 한 번씩 자전하고, 천량은 365.25일 마다 태양과 함께 떠오르고, 달은 29.5일 마다 차고 이슬며, 하루에 두 번씩 조석작용(썰물과 밀물)이 있다. 지구상에 서식하는 모든 생물체는 이러한 기본적인 리듬 속에서 탄생하여 진화해 왔기 때문에 내부적 생물시계를 가지고 있는 것이다.

예를 들어 우리들은 다른 대륙으로 여행을 하게 될 때 시차를 느끼으로써 생물시계를 가지고 있음을 알게 된다. 그러나 생물시계가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사람을 대상으로 연구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따라서 생물학자들은 초파리, 생쥐, 어류 등과 같은 모델생물을 대상으로 어떻게 생물시계가 작동하는지에 대한 비교 연구를 수행하여 그 결과를 사람에게 적용하고 있다.

제주도와 일본 오키나와 섬은 공통적으로 쿠로시오 난류의 영향을 받고 있다. 제주도 근해는 난대와 온대 한계선

이 교차하는 지점으로 국내산 해조류 종의 70%, 어종의 60% 이상이 분포하고 있는 국내에서는 종 다양성이 가장 높은 지역이다. 최근 들어 지구온난화에 따른 기후환경 변화의 영향으로 해양생태계가 점진적으로 변화면서 토착성 해양생물자원이 점차 사라지고 아열대성 생물들이 유입되고 있다. 한편, 열대의 북방한계라고 알려진 오키나와 연안에는 다양한 종류의 산호류와 산호초에 서식하는 무수한 산호초 어류들이 서식하고 있다. 일본 정부는 1994년에 일본 최남단에 위치한 류큐대학교 산하에 열대생물연구소 설립하여 연안의 열대·아열대성 생물종 다양성에 관한 국제협력 연구를 촉진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지구상의 다양한 해양생태계에서 서식하는 어류들이 나타내는 독특한 산란 주기는 종 번식의 성공률을 최대화하도록 서식지의 환경적 요인에 적응한 결과라 할 수 있다. 우리 연구팀은 지난 2000년부터 류큐대학교 열대생물연구소와 공동으로 제주도와 오키나와 연안에 서식하는 놀래기류를 대상으로 자성선속어의 성전환과 산란주기 동조성에 미치는 환경요인(달빛과 조석)에 대한 국제협력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어류에서 해양의 환경요인 중 수온과 광주기는 어류 체내의 생리, 생화학적 변화들을 동반하며, 생식활동의 개시 및 종결 등을 조절하는 아주 중요한 요소로 알려져 있다. 일주기(24시간) 리듬체계는 빛의 인식 및 수용, 광신호의 신경 및 호르몬 신호로의 전환에 관련된 다양한 구성성분을 가지고 있다. 주요 핵심은 망막에 존재하는 광센서를 통해 인식된 광에 의해 24시간 밤과 낮 주기에 동조되는 자율적인 활성을 갖는

시계 장치로 구성되어 있다. 이 시계는 리듬성의 출력 신호의 생산을 조정하는데, 멜라토닌은 척추동물의 주요한 출력신호의 하나로 리듬성 정보를 전달하는 역할을 한다.

포유동물은 망막을 통해서만 광 신호 인식을 하는 반면에, 어류인 경우 망막 이외에 송과체 및 뇌 심부 또한 광신호를 인식한다. 정확한 광 인식 및 광 정보 전달에 대한 기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도 정확하게 밝혀지지 않았으며, 어류들마다 다른 광 인식 기관 및 광 정보의 전달 경로가 다소 다르게 나타나기도 한다.

다양한 리듬의 조절에 있어서 수온과 광주기 신호의 중요성은 수많은 연구자들에 의해서 폭넓게 인식되고는 있지만, 감각기관은 이러한 환경정보들을 어떻게 감지하고, 어떠한 경로를 통해 내부적인 신호로서 전달·전달되어지고 있는가에 대하여 아직까지도 불분명하다. 다만 어류에 있어서는 수온, 광주기와 같은 외부의 환경 신호가 뇌의 송과체에서 분비되는 멜라토닌이라는 체내 신경전달물질의 주기적 생성으로 전달되어지고, 시상하부-뇌하수체-생식계의 활성 경로를 통해 생식선의 발달 개시와 종료를 조절하는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

우리 공동연구팀은 오키나와 연안의 산호초 어류 및 제주 연안의 어류 중에 월주기성(lunar cycle) 혹은 조석주기에 따라 산란 동조성을 보이는 어류들을 동정하였으며, 이들의 생물시계의 작용기전을 밝히는 것을 최종 목표로 하고 있다. 그 동안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일주기에서의 관찰되는 멜라토닌의 농도변화와 비슷하게 월주기성 산란동조를 보이는 어류에서도 멜라토닌 농도

는 초승달에는 증가되고 보름달에는 감소되기 때문에, 어류의 송과선과 망막에서 생성되는 멜라토닌은 햇빛(daylight)과 달빛(moonlight)에 의해서도 변화를 보인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현재에는 달빛 혹은 조석의 차이에 의해 유도 혹은 억제되는 유전자들을 분리하고 있으며, 이러한 과정을 통해 특정 유전자들이 분리된다면 그들의 발현이 달 주기와 혹은 조수와의 연관성이 있는지를 밝힘으로써 월주기성 및 조석주기성 산란주기를 조절하는 분자시계의 구성요소와 그들의 작용기전을 규명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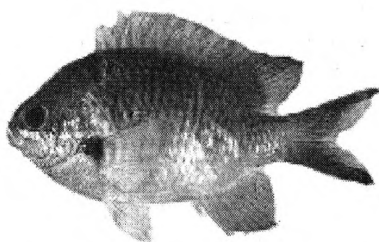
본 연구를 위한 제주도와 오키나와에서 선발한 대상 어종은 월주기 및 조석주기에 따른 산란주기 동조성을 나타내는 놀래기류와 자리돔류이다(그림 참조). 두 지역에서 서식하는 어류들을 대상으로 수온 및 광주기 등의 환경 요인에 따른 산란 및 생식 주기의 동조에 관한 연구는 지구 온난화로 인해서 점점 아열대 기후로 바뀌고 있는 제주 연안의 어족자원의 보존 연구에 있어서 중요한 자료가 될 것이다. 또한 사람에서 생물시계는 밤과 낮을 통해 거의 모든 인체의 생리현상에 변화를 야기한다. 최근 들어 이러한 생체리듬을 적절하게 활용함으로써 암을 비롯한 여러 질병들을 효과적으로 치료할 수 있다는 실험 결과들이 축적되고 있다. 예를 들면, 멜라토닌은 인슐린 분비를 억제한다고 알려져 있다. 이러한 정보는 당뇨병이나 대사성 증후군과 같은 질환 치료에 활용될 수도 있을 것이다. 따라서 어류에 대한 생물시계에 대한 분자생물학적 이해는 사람에서의 질환의 예방 및 치료에도 유용한 기초자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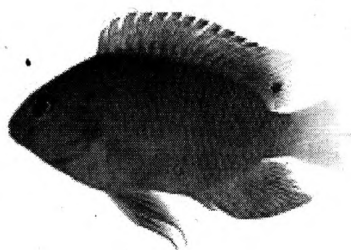
제주도 놀래기



오키나와 놀래기



제주도 자리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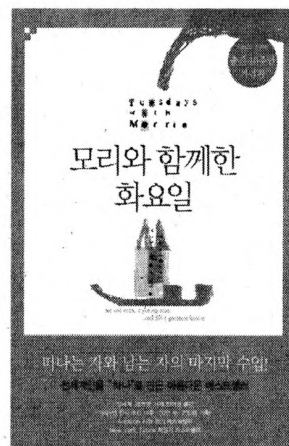


오키나와 자리돔

한권의 책

이토록 소중한 하루인 것을...

죽음 앞둔 노스승의 삶 감동 묘사



미치 앨봄 지음/공경희 옮김

풍요의 시대, 부족함이 없는 이 시대에 책도 예외가 아니다. 예전에는 감히 출판할 수 있으리라 생각지도 못했던 이야기 거리, 사소한 경험들에 관한 책들, 성공적인 대화법, 성공적인 인간관계, 성공적인 삶을 만들어 가기 위한 일종의 성공학 개론서들, 큰 활자에 두꺼운 재질, 게다가 그림까지 정갈이 수심 분이면 읽어재길 수 있는 책들로 서점의 진열대는 넘쳐난다. 하지만 이렇게 과잉 공급되는 술술 읽히는 재미있는 책들 속에서 한 줄 한 줄 음미하면서 오래도록 여운을 맛볼 수 있는 책을 찾을 확률은 그만큼 줄어들 수밖에 없다. 더구나 번역서라면, 원래 쓰여진 언어로서만 전달될 수 있는 느낌을 충분히 살리고 있는 경우가 많지 않기 때문에 그 가능성이 더욱 더 낮아진다.

그래서 서점에 나와 있는 책들을 신중하지 않게 되고, 집에 가지고 있던 책들, 예전에 읽었던 책, 오래 전에 만들어진 책들에 더 손이 가게 된다. 몇 해 전 남편이 읽어보라면서 전해 준 '모리와 함께 한 화요일' 번역본을 받아들었을 때도, 내가 선입견을 가지고 있던 그런 종류의 책이라 생각하고 책꽂이에 꽂아 둔 채 눈길을 주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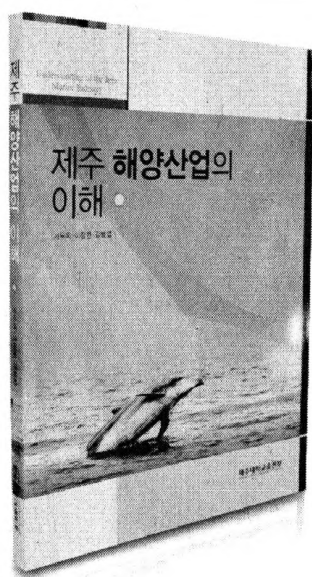
않았다. 사실, 너무나 뻔한 이야기 일 것이라 지레 짐작하고 별로 읽어 줄 마음이 없었다. 그러다가 이왕 읽을 거면 원본으로 읽어보자는 생각으로 서점에서 문고판 영문서를 사서 읽게 된 것이다. 하지만 예상 밖으로 달리 한 페이지 한 페이지가 정말 아름답고 마음에 와 닿아서 오히려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추천해 주게 되었다. 게다가, 난이도라든가, 문체가 간결하면서도 함축적이라는 점, 두께가 적당해서 교양과목의 교재로 쓰기에 는 무리가 없겠다는 판단이 들어 지난 학기 영어 읽기 교재로 채택했을 때는 사실, 학생들에게 조금 버거울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기도 했다. 하지만, 수업이 진행되어 가면서 내가 수업 시간을 기다리는 만큼, 아니 그 이상으로 수업에 즐겁게 참여하는 학생들을 보면서 이 책과 함께 한 화요일과 목요일이 정말 나에게 활력소가 되었다.

학업과 취업을 위한 것이 아니면 가치를 두지 않는, 아니 두지 못하는 우리 학생들에게, 나를 돌아보고 가족과 주위를 돌아볼 여유를 가지지 못하고, 가치 상실의 시대, 내가 누구인지 생각할 필요도, 여유도, 욕구도 점점 상실해가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이 책은 우리가 한번쯤은 꼭 돌아봐야 할 질문과 주제를 다루고 있다. 내가 진정으로 소중하게 여겨야 할 것은 무엇인지, 내가 살아가고 있는 하루하루는 나의 선택과 행동으로 채워지고 있는지, 진정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지, 이 책을 읽으면서 생각하고 정리해 본다면 나를 조금 더 행복하게 만들어 줄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번역본을 확 읽고 지나가기보다, 원서를 가지고 한 문장 한 문장을 천천히 음미한다면 이 책의 가치를 더욱 느낄 수 있을 것이다.

이수아 동덕대학교 한영과 강사

2009 신간 모음

제주대학교 출판부
CHEJU NATIONAL UNIVERSITY PRESS



제주 해양산업의 이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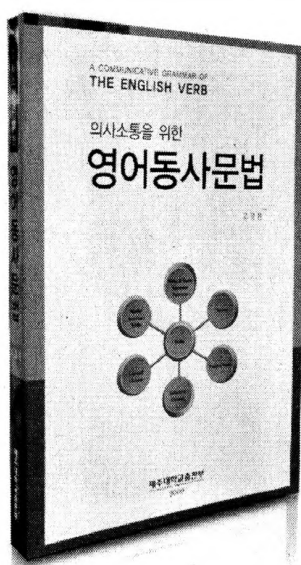
오늘날 세계는 약 66억 명의 인구가 살고 있고, 2050년에는 약 92억명의 인구가 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이로 인한 식량의 부족, 상수부족, 에너지자원, 광물자원의 부족, 생활환경의 오염, 대기의 온난화, 해면 상승 등 인류의 생활여건이 날로 악화되어 여러 가지 부정적인 현상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다. 이러한 시점에서 세계인의 관심은 지구 표면의 약 71%를 차지하고 있는 해양개발에 집중되고 있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귀결이라 하지 않을 수 없으며, 곧 해양은 우리 인류에게 남겨진 마지막 자원의 보고 특히 식량자원의 보고라고 할 수 있다.

서두욱 / 이창현 / 김병범 | 값 13,000원

제주현대문학사

아무리 사적 서술이 형식을 취하고 있다 하더라도, 방법적 전제가없이 서술된 문학사는 제대로 서술된 문학사라고 할 수 없다. 그래서 모든 문학사는 문학사 서술에서 요구되는 방법적 전제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 물론 제주현대문학사도 여기에서 예외가 아니다. 누구에 의해 쓰여졌든, 완벽한 문학사는 쓰여질 수 없을 것이다. 단언컨대, 최초의 이작까지 그런 문학사는 쓰여지지 않았다.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이 책의 단점을 변화하는 근거가 될 수는 없다.

김병택 저 | 정가 15,000원



영어동사문법

동사는 문장의 '핵' (核: core)이다. 동사를 중심으로 하여 갖가지 문장 구조·태·시간 관계·화자의 심적 태도 따위가 표출되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는 반드시 형태·기능·의미의 상호 관계를 소홀히 할 수 없으며, 이 삼자의 관계를 떠나서는 결코 문법을 논할 수 없다. 이 책은 필자의 「실용영문법해설」 1권(2006 중보판)에서 동사, 조동사, 시제, 수동태, 그리고 2권(2001)에서 부정사절과 동명사절 등 모두 여섯 장을 근간으로 하여 대학에서 영문법을 전공과목의 하나로 공부하는 학생들을 위하여 전반적인 내용을 크게 확충·설명하고 필요한 각주를 상세히 달았다.

고경환 | 정가 20,000원

한국어 어휘형성론

사람은 말과 글로써 사상(思想, 感性)의 세계를 펼쳐면서 서로 의사소통을 한다. 그 결과에 사람의 생각과 정신이 반영된다. 또한 언어는 시대 변천과 사회 변화에 따라 생성소멸(生成消滅)한다. 그래서 인간은 필요에 따라 말어휘를 얼마든지 만들어 사용한다. 그런데 우리가 늘 대하는 말, 특히 어휘는 언어체계에 내재(內在)한 수많은 언어재(言語財)의 구성요소로 따라 어떤 일련의 원리나 규칙에 근거를 두어 말이 만들어진다.

최규일 지음 | 정가 30,000원



◆미디어법 무엇이 문제인가?

조중동의 신문·방송·통신 무제한 확장 길 터 줘

허울뿐인 사전·사후 규제... 거대자본 방송장악 보장

한나라당이 지난 7월 22일 국회 본회의 직권상정을 통해 강행처리한 '미디어 관련법'은 방송법, 신문법, 인터넷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IPTV법) 등 세 가지다. 한나라당의 최종안은 조선·중앙·동아일보 등 거대 족벌신문과 재벌의 방송장악을 용이하게 하고, 여론 독과점을 강화하는 독소조항이 그대로 포함됐다. 언론단체와 전문가들이 방송장악을 위한 '언론 약법'이라고 규정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첫 번째로 방송법은, 대기업과 신문이 KBS와 MBC, SBS 등 지상파 방송과 사실상 지상파의 영향력을 갖고 있는 종합편성채널, 그리고 YTN과 같은 보도전문 케이블 채널을 소유할 수 있도록 조건을 완화하는 것이 핵심 내용이다. 법안은 신문과 대기업의 지분참여 한도를 지상파 방송 10%, 종합편성채널 30%, 보도전문채널 30%로 정했다. 또 2012년까지 신문·대기업의 지상파 방송 경영은 유예하되, 지분 참여는 허용키로 했다.

다만 지역MBC와 지역민방에 대해선 당장 지분참여는 물론 경영까지 가능하도록 예외조항을 뒀다.

법안은 구독률이 20%를 넘는 신문의 방송 진출을 불허키로 했다. 방송사업자의 시청점유율이 30%를 넘으면 광고 제한 등의 방식으로 '사후규제'에 나선다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여기에 신문의 방송 소유·경영시 신문 구독률을 10% 범위 내에서 시청점유율로 환산하는 '매체 합산 시청점유율' 제도를 도입했다. 이 같은 내용의 방송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자본의 방송 장악과 '조·중·동' 등에 의한 여론 독과점 현상이 현실화되는 길이 열렸다는 지적이 나온다. 신문과 대기업 10곳이 결탁하면 MBC같은 지상파를 완전 소유할 수 있고, 3곳이 결탁하면 YTN같은 보도전문채널은 90%까지 소유할 수 있어, 방송을 완전 장악할 수 있다.

외국인 투자 허용도 문제다. 법안은 외국인에게도 종편의 20%, 보도채널의 10%까지 소유를 허용하고 있다. 외국 자본에 여론형성 기능을 사실상 허락한 셈이다. 방송의 1인 소유지분 한도를 30%에서 40%로 높인 것을 두고는 방송의 사유화를 심화시킬 것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언론학자들은 경영권 행사 정도가 아니라 '내 것이다'라며 소유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이라고 비판한다.

여론 독과점 해소를 위해 도입됐다는 사전·사후 규제 조치는 허울에 불과하

다. 신문 구독률, 즉 전체 가구에서 특정 신문을 보는 가구비율은 조중동의 경우에도 각각 10% 내외에 그치고 있다. 그러나 종합일간지 가운데 이들 신문의 구독 점유율은 전체가 7~80%를 차지한다. 결국 한나라당이 제안한 사전규제 즉 '구독률 20%'를 넘는 신문사는 국내에 한곳도 없다. 조·중·동의 방송 진출의 장벽이 되지 못한다. 사후 규제 조치로 도입된 '시청점유율 30% 제한'도 현재 평균 시청점유율이 20%를 넘는 국내 방송사조차 없어 실효성을 갖기 어렵다. 지상파 방송 경영을 2012년까지 유예한다는 조항도 지상파 방송이 디지털로 전환되는 것이 2012년임을 감안할 때 '눈 가리고 아웅하는 격'이라는 비판이 불가피하다.

신문법의 경우, 일간신문과 뉴스통신사의 상호 경영 금지를 폐지하고 지상파, 종합편성, 보도전문 방송의 경영 역시 허용한 것이 골자다. 대기업은 일간신문에 한해 지분의 50%를 초과해 취득 또는 소유할 수 없도록 했다. 또 일간신문·뉴스통신·방송사의 일간신문사 주식 및 지분 취득 제한을 없애, 일간신문 지배주주가 여러 신문 소유를 가능토록 했다. 이렇게 되면 여론의 다양성을 훼손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된다.

신문 지원기관인 신문발전위원회와 한국언론재단을 통합해 '한국언론진흥재단'을 신설하고, 신문 유통을 신설 재단에 맡기도록 했다. 그러나 통합재단 이사장의 임명권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갖도록 해 정부 지배력을 높이기 위한 일환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신문시장 정상화를 위한 '신문 고시' 조항은 살아 남았다. 한나라당은 당초 신문법 중 '신문사가 구독자의 의사에 반하는 구독계약 금지와 불공정행위에 해당하는 무가치, 무상경품을 제공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불공정행위 여부와 처리는 공정거래법에 따른다'(10조)는 조항을 삭제할 방침이었다. 그러나 미디어발전국민위원회의 한나라당 위원들조차 이 조항의 '존치' 필요성을 제기, 받아들이는 것이다.

한나라당은 고급 콘텐츠 제작, 해외 진출 촉진 등 '방송 선진화'와 일자리 창출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방송법 개정안의 연장선상에서 추진된 만큼 '방송법 개혁'의 문제점이 그대로 제기된다. 즉 대기업의 종합편성·보도전문 PP 진출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며, 이에 따라 자본의 방송 장악, 여론 독과점 문제가 남아 있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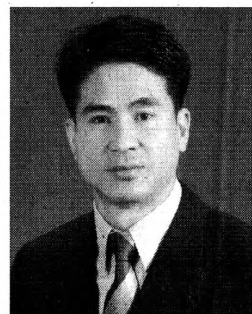
지난달 25일 제주시청 어울림마당에서 열린 시국 촛불문화제에 참여한 시민들이 미디어법 통과를 반대하며 피켓을 흔들고 있다.

국민 절대 다수가 공영방송을 조중동 족벌신문과 재벌들에게 넘겨주는 언론법을 반대하는 이유는 방송의 주인은 국민이고, 공기와 물 같은 공공재 성격을 띠기 때문에, 언론을 가장한 범죄집단인 조중동이나 돈벌이에 혈안이 된 재벌들에게 결코 쥐서는 안된다는 국민적 합의에 기초한 것이다. 그럼에도 한나라당이 이 법안에 강하게 집착하는 이유는 간단하다. 자신들과 성향이 같은 세력, 즉 재벌과 조중동에게 방송과 신문들을 넘겨줘 여론을 자신들 편으로 장악하고 장기 집권의 발판을 마련하는 것이 본심이다. 한나라당은 TV보도가 편파방송을 했기 때문에 1997년과 2002년 두 번의 대통령 선거에서 패했다고 우기고 있다. 조중동이 신문시장을 장악하고 있는데도 밀린 이유는 오로지 TV 때문이라는 것이다. 한나라당 고위인사들이 대선 승리 후 MBC 등을 손보겠다는 발언을 해온 것도 이 때문이다. 한나라당을 지지하는 조중동, 그리고 같은 정치경제적 입장에서 있는 재벌이 지상파 방송, 종합편성, 보도전문채널에 진출해 방송뉴스를, 장악하게 되면 자신들의 장기집권이 가능하다고 믿고 있는 것이다. 결국 언론악법은 1% 특권세력의 장기집권을 도모하는 한나라당과 조중동, 재벌의 3각 동맹이 이뤄낸 합작품이다.

한나라당이 불법 날치기 처리한 언론악법이 시행되면 지역언론은 고사하게 된다. 우선 정치권력과 대기업과 결탁한 조중동이 지역방송을 헐값에 집어삼키기 시작하고, 지역신문까지 무차별 인수하게 된 제주에서 조중동이 지역방송과

지역신문을 완전장악하게 될 경우

어떤 현상이 나타날지 생각하는 것은 어렵지 않다. 조중동 모두 '지역 혁신도시 건설'에는 반대, '수도권 규제완화'에는 찬성을 밝히고 있어서, 지역 균형 발전을 외치는 지역의 목소리는 지역언론에서 완전히 묻히게 될 것이다. 결국 MB의 '수도권 집중개발정책'에 대한 견제가 더욱 약해지면서, 지역기업의 수도권 역류가 빨라진다. 결국 지역산업 전반이 침체되고 일자리가 줄고 지역경제는 더욱 나빠지게 된다. 또한 해군기지를 반대하는 지역주민들의 정당한 목소리는 국가안보 차원의 국책사업을 반대하는 빨갱이의 목소리로 매도되고, 유권자의 정당한 권리행사인 도지사 주민소환운동도 반정부세력의 폭동으로 매도당할 수 있다. 대통령 사과와 4.3 위령공일 조성으로 역사바로세우기가 진행 중인 4.3기념사업은 언제 '빨갱이 기념사업', '빨갱이 기념공원'으로 이름이 바뀔지 모를 일이다.



현제훈
제주MBC 언론노조지부장

■ 미디어법이 지역사회에 미칠 영향

지역언론이 살아야 도민 목소리가 산다

“지금대로 추진하면 지역언론은 고사”

신문법을 비롯한 미디어관련 3개 개정법안이 지난달 22일 민주당의 극심한 반대와 불참 속에도 강행 처리됐다. 한나라당은 이날 국회 경위와 소속 의원들이 국회의장직 주변을 점거하고, 민주당 등 야당 의원들의 접근을 막은 채 이윤성 국회의장의 사회로 미디어관련 3개 법안을 표결에 부쳤다. 방송법은 재석의원 153명 표결에 참석해 찬성 150표와 기권 3표로, 신문법은 재석의원 162명 중 찬성 152표와 기권 10표로, 인터넷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IPTV법)은 161명 표결에 전원 찬성으로 통과됐다.

이에 대해 민주당 등 야 4당은 23일 헌법재판소에 방송법의 효력 정지가처분 및 권한쟁의심판청구를 신청했다. 또한 민주당의 정세균 대표와 천정배 의원은 24일 미디어관련법 강행 처리에 항의해 국회의원직을 사퇴하는 등 미디어법 통과를 비판하는 목소리가 크다. 현재 가장 뜨거운 감자인 미디어법은 향후 어떤 후폭풍을 불러올까.

한나라당과 민주당이 미디어법을 둘러싼 법리 논쟁에 들어갔다. 미디어법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및 권한쟁의 심판을 접수한 헌법재판소도 지난달 30일 본격 심리를 시작했다. 양당은 이번 사안이 지난 2004년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이래 가장 논쟁적이며 정치적인 사안으로 증폭됐다는 판단에 따라 그간의 대치와는 다른 차원의 법률 공방을 준비하고 있다.

▲제주 지역사회의 반응
제주지역에서는 지난달 23일 민주노총제주본부 제주시청 어울림마당에서 제민일보, 한라일보 노조원 등 제주본부 소속 조합원과 시민사회단체 회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미디어법 통과 규탄! MB 악법 총력 저지 결의대회'를 열었다. 이어 25일 제주시청 어울림마당에서는 민주노동당 제주도당, 제주통일청년회, 남북공동선언제주실천연대 등 정당과 사회단체들이 모여 시국 촛불문화제를 개최했다. 또한 26일에는 민주당 제주도당이 하계연수회에서 '언론악법 부정투표 원천무효 투쟁 결의문'을 발표하는 등 강력 반발하고 있다.

지역방송을 비롯한 지역언론 노조와 시민사회단체들의 이런 움직임은 언론법 파장이 중앙보다 지역 매체에 미치는 영향이 훨씬 크다는 생각에 기반하고 있다. 우선 언론법이 시행된다면 지역 민영방송은 신규 종합편성(종편)에 속수무책으로 당할 가능성이 높다. 종편은 전국을 대상으로 하는 대대 케

사되서를 제출하는 등 미디어법 통과를 비판하는 목소리가 크다. 현재 가장 뜨거운 감자인 미디어법은 향후 어떤 후폭풍을 불러올까.

이들 채널과 위성방송을 통해 의무 재전송이 되기 때문에, 지역방송의 영향력과 비교가 안 된다. 이미 지역MBC의 경영 사정은 심각한 위기에 빠져 있다. 지난해 19개 지역MBC 1사당 평균 14억원의 적자를 봤다. 7곳을 뺀 12곳이 적자를 기록했다. 지역민방 역시 사정은 다르지 않다.

방송법이 시행될 경우, 지역방송들은 대규모 인수합병에 휩쓸릴 것으로 분석된다. 강행 처리된 방송법에 따르면 신문과 대기업은 지역방송에 대해 당장 10%의 지분 참여와 경영권 행사가 가능하다. 규모가 큰 복수종합유선방송사업자(MSO)들은 이미 지역민방 인수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강보배 수습기자

제주도의회, 영리병원 도입안 가결... '민심외면 졸속 처리' 비난

영리병원보다 공공의료서비스 향상이 먼저

제주도에 영리병원(투자개방형 병원) 도입이 현실화되고 있는 가운데 시민사회단체 등 대다수 여론이 영리병원 허용을 반대하고 있어 추진과정에서 난항이 예상된다.

지난달 21일 영리병원 도입 허용을 포함한 '제주특별자치도 4단계 제도 개선 핵심과제 동의안'이 제주도의회를 통과하면서 영리병원 도입 여부에 대한 논란은 본격화됐다.

제주도는 '의료 관광을 통한 지역경제의 활성화' 등을 이유로 영리병원을 추진하고 일부에서는 '의료수가 상승' 등을 우려하며 영리병원 도입을 반대하고 나섰다.

영리병원이란 일반 투자자가 병원을 개설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현재 우리나라의 법 체계에서 병원 개설은 의사나 비영리 의료법인만 할 수 있다. 그러나 영리병원인 허용되면 병원을 일반 투자자가 설립할 수 있고, 주식회사처럼 투자자가 병원을 통해 생긴 이윤을 전액 회수할 수 있다.

병원에 경제의 개념이 들어간 영리병원의 특성 때문에, 영리병원 도입을

의료 관광이 부가 가치 창출, 지역경제 활성화

두고 '경제 활성화'와 '의료수가 상승'이 맞물렸다.

제주특별자치도 교육의료산업팀은 영리병원의 이점을 들어 영리병원 도입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교육의료산업팀은 도 홈페이지에 '투자개방형 병원 도입 이해'라는 게시물을 올려, 영리병원 도입의 기대효과를 3가지로 나누어 설명했다. 내용은 △의료 서비스 질의 향상 △일자리 창출 △의료 관광의 활성화를 통한 의료, 관광, 교통 등 연관산업의 부가 가치 창출로 지역 경제 활성화 등이 다. 교육의료산업팀은 이 게시물을 통해 국민건강보험은 현재대로 적용할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하는 한편, 의료 관광의 부가 가치 창출 효과를 강조했다.

교육의료산업팀 관계자는 “제주 동북아시아의 중심지로 다양한 관광 객 수용시설을 갖추고 있다”며 “의료에 제주의 청정 환경이 더해져 관광의 메리트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부풀려진 의료관광·경제활성화

그러나 일각에서는 의료관광 효과와 지역 경제 활성화라는 도입 필요성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박형근(의과대학) 교수는 현재 의료관광이 활성화된 대표적 국가인 싱가포르, 태국, 인도의 경우 모두 저렴한 인건비를 활용한 '저가 의료'를 경쟁력으로 내세우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미국의 경우 필수로 가입해야 하는 국민건강보험 체계가 없어, 의료보험이 없는 사람들과 보장성이 낮은 민간보험에 가입한 사람들이 많다. 박 교수는 의료관광에 주 고객이 되는 대상은 이러한 '의료보장소외계층'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박 교수는 “병원 생산원가에서 인건비는 절대적 비중을 차지한다”며 “우리나라에서 의료 가격을 낮추기란 거의 불가능하다”고 피력했다. 현재 우리나라는 병원에 종사하는 인력의 절대수가 크게 부족한 편이다. 보건복지가족부의 '우리나라 보건 의료 실태 분석 결과'를 보면, 2006년 우리나라

의 활동의사 수는 인구 1,000명당 1.7명으로 OECD 회원국 활동의사 수 3.1명보다 적다. 이는 OECD 회원국 중 터키(1.6명)를 제외하고 가장 적은 숫자이다. 이러한 인력부족은 의사 1인당 진료량을 늘리게 돼, 자연스럽게 의료 서비스의 질을 떨어뜨리게 된다. 의료관광에 있어 '양질의 서비스'를 지향하는 외국과의 경쟁에서 살아남으려면 우리나라도 서비스의 질을 높일 수밖에 없다. 이를 위해서는 인력증진이 불가피한데, 이는 곧 인건비 상승과 의료가격 상승을 의미한다. 박 교수는 서비스와 저가격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 없을 것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의료관광을 통한 경제 활성화는 사실상 허구”라고 피력했다.

도민 허리는 휘는데 의료비만 인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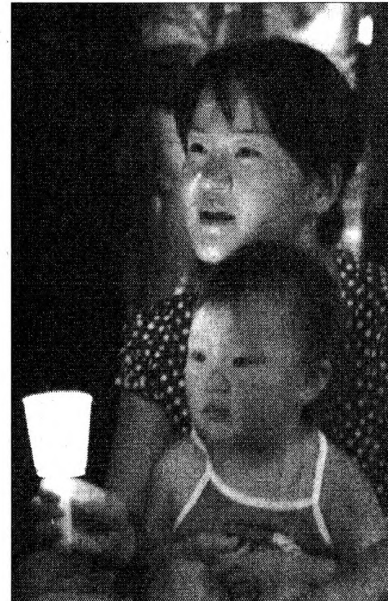
교육의료산업팀이 도청 홈페이지에 올린 게시글에서 이기호(인제대 보건대학원장) 교수의 주장에 따르면 사실상 의료수가 상승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투자개방형 병원 도입 이해”라는

제목의 이 게시글을 보면, 이 교수가 2008년 6월 26일 KBS 제1라디오 '라디오 정보센터 이규원입니다'를 통해 영리병원에 대한 견해를 밝힌 내용이 발췌돼 있다. 이 교수는 '양질의 서비스를 위해 우수 의료진을 채용하게 되면 인건비가 비싸지고, 이를 환자가 부담해야 할 것'이라는 질문에 대해 “질이 높으면 치료비를 많이 부담해야 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며 “지금까지 우리나라 건강보험이 저가정책으로 의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했는 데, 앞으로의 과제는 질을 높여서 국민들이 만족할 만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도민들은 대체로 영리병원 도입에 반대입장을 보였다. 김희정(32)씨는 “요즘 경제가 어려워 지금도 병원 문턱이 높다”며 “아기들은 자꾸 아프기 때문에 영리병원 도입 후 서비스의 향상은 문제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국민의 생명이 걸린 '의료'만큼은 국가에서 책임져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최근에 의사 추천으로 값비싼 로봇수술을 통해 암치료를 받았던 고안나(41)씨는 “생명이 걸린 문제 앞에서 환자는 의사가 하라는 대로 할 수밖에 없다”며 “의료가 공공의 영역을 떠나버리면 진짜 돈 많은 사람들은 길거리에서 죽어야 하는 상황이 올 것”이라고 우려했다.

교육의료산업팀은 도 홈페이지에 '투자개방형 병원 도입 이해'라는 게시물을 통해 의료비 급등에 대해 답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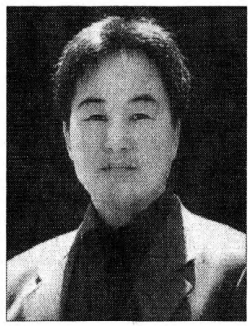


지난달 25일 제주시청 어울림마당에서 열린 시국 촛불문화제에서 아기를 품에 안은 엄마가 '영리병원 반대 촛불'을 밝히고 있다.

했다. 교육의료산업팀은 “비영리법인 병원 역시 별도의 수입이 거의 없기 때문에 영리병원과 마찬가지로 이윤 창출이 있어야 병원 운영이 가능하다”며 “결국 영리활동을 어떻게 규제하느냐가 문제이므로, 공공성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영입활동을 규제한다면 충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도민들의 의료수가 상승에 대한 우려가 증폭되고 있는 가운데, 도의 답변이 과연 도민들의 우려를 잠재울 수 있을지 주목된다. 고희수 수습기자

무론유설



김원환 미술학과 교수

태고의 인간은 동굴 속에서 살면서도 자신들의 흔적을 남겨 놓았는데, 가장 오래된 것 중의 하나가 알타미라 동굴벽화이다. 그 이후로 인간의 문명은 수세기에 걸쳐 엄청난 변화를 겪어 왔다. 그것이 이른바 아직도 일반인들에게는 익숙하지 않은 현대미술이라는 것이다.

중에서 피카소가 미술의 이정표를 바꾸어놓은 대표적인 화가인데, 엄청난 세월 속에서 만들어낸 전통을 하루아침에 그 방향을 틀어버렸으니 가히 위대한 인물이라고 아니할 수가 없다. 도대체 피카소의 작품을 어떻게 이해하면 되는지 많은 학생들이 일

반인들이 궁금해 한다. 아마 피카소가 생전에 한 말을 인용하면 긴 이야기가 필요 없을 것 같아서 여기에 소개 해본다. “사람들은 새들의 지저귀는 소리를 이해하려고 애를 쓰면서, 정작 왜 나의 작품들은 이해하려고 하지 않는가.” 자기 자신을 표현하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었으나 언어와 몸짓을 빼놓고는 바로 조형적인 언어로서의 미술표현양식을 꼽을 수 있겠다. 개인의 표현은 우리 사회 집단의 표현으로 불리는 소위 문화이든, 그 표현방법이나 양식이 그 개인이나 집단의 수준의 척도가 되고, 그 나라의 융성함을 보여주는 바로미터라고 하여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이것은 곧 국가 위상의 정립에 있어서 정체성에 관한 미술의 중요성을 말해준다고 할 수 있다.

가장 가까이 있으면서도 멀리 있어 보이고, 친근하면서도 낯설어 보이는 것이 미술인데, 이런 현상이 기본적으로 교육의 문제에 있지 않나 생각이 된다. 오늘날 우리 교육의 현실은 임시 교육에 치우쳐 있어서 예능교육에 등한시 되고 있다. 특히 고등학교 수업 시간 일수를 보면 미술시간이 옛날에 비해 꽤 축소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 한 학교의 미술선생님의 숫자가 거의 한 명, 또는 계시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학교 이야기가 나와서 나의 학

창시절 미술시간이 생각난다. 미술시간에 준비물을 가져오지 못한 친구가 선생님께 꾸중을 듣고 나서는 그 이후로 그림만 보면 보기도 싫고 그리기는 더더욱 괴롭다고 하여 씩씩하게 웃고 넘어간 일이 있다. 옛날에는 미술용품 중에 도화지와 물감은커녕 붓 한 자루 제대로 장만할 수 없을 정도로 다들 찢어지게 가난했으니, 미술시간마다 선생님의 눈치를 살피느라 미술과 멀어진 사람이 참 많았을 것이라는 생각에 안타깝다.

그런데 나를 가르쳐주신 선생님께서는 미술시간만 되면 학생들을 모두 운동장에 모아놓고는 아무 막대기나 주워서 이 넓은 대지에 마음대로 아무것이나 생각나는 대로 그리게 하셨다. 또 어떤 날에는 학생들을 모두 학교 근처 숲으로 데려가셔서 이번에는 “모두 하늘을 보면서 눈과 마음으로 저 푸른 하늘에 그림을 마음껏 그려보아라!” 하시는 것이다.

이후에 우리 선생님의 제자들 가운데 화가, 음악가 등 많은 예술인들이 배출 되었다. 한 사람의 교육방법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보여주는 본보기일 것이다. 그 시절 미술도구를 장만하지 못하는 학생들에 대한 배려와 더불어 정신적으로도 올바른 표현방법을 가르쳐주셨으니 현재 학생들을 가르치는 나로서도 다시 한번 선생님께 숙연함을 느낀다.

미술을 어떻게 보느냐, 그리고 어떻게 표현하느냐가 우리 모두의 관심사일 것이다. 사람들은 과거에 경험했던 기억의 틀을 가지고 현재의 상황을 판단하려 하는 특성이 있다. 이것을 소위 고정관념이라 한다. 일단 미술작품을 이해하려면 기본적으로 속담과정이 좀 필요하긴 하다. 이것은 약간의 고정관념이 필요하다는 말이기도 하다. 마치 젓가락을 사용하는 것처럼, 훈련된 눈으로 미술작품을 보면 이해하는데 어느 정도 도움이 되는 것은 사실이다.

우리 생활의 모든 것이 미술로 포장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러한 환경 속에서 미적관념을 느끼지 못하며 살아간다면 현대인으로서 조금 문제가 있다고 볼 수 있다. 우리의 무지함을 벗어던지기 위해서라도 가까운 미술관에 자주 가는 습관을 가졌으면 좋겠다.

여러분들 모두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면서 미술이라는 것을 생활의 기본 바탕으로 삼아 삶을 영유할 수 있다면 여러분은 현명한 사람이 될 것이다. 여러분의 가정이나 직장에 유명작가의 작품이 아니더라도 본인이나 가족, 가까운 사람이 그려준 그림이 벽에 걸려 있을 때, 그리고 그 공간에 브람스나 우리 고유의 음악소리가 은은하게 울려 퍼질 때 여러분은 가장 멋진 삶을 살고 있는 것이다.

사설

소통과 존중 그리고 이성적 판단

지난달 28일, 총장임용추천위원회(이하 총추위)는 총장 재선거여부를 묻기 위한 찬반투표실시를 결정했고 교수회도 이에 동의했다. 이 결정이 내려지기까지 참으로 많은 시간이 흘렀다. 그 간의 과정이야 어떻든 우선 급하게나마 대학 정상화를 위한 일보를 내딛게 되어 다행이다.

물론 이 같은 결정이 내려지기까지에는 두 가지 상반된 의견 때문에 힘든 과정의 연속이었다. 하나는 1순위 임용후보자에 대한 임용거부사체에 대한 문제 제기인데, 이유를 불문하고 교육과학기술부(이하 교과부)가 대학총장선거 결과를 무력화시켜 대학자율권을 침해했다는 의견이었다. 또 다른 하나는 임용거부라는 현실을 받아들이지 않자마자 빠른 시간 내에 재선거를 치러야한다는 의견이었다.

대학의 자존심을 결코 자율권수호를 내세운 ‘재선거부’ 견해와 현실인식을 바탕으로 대학의 빠른 정상화의 길은 ‘재선거’라는 견해 사이에서 구성원들 간에 많은 갈등이 표출되고 있다. 그동안 돌만 이면 대학 걱정을 하고 의견 교환을 하면서도 조용히 지켜보았던 것은 교과부의 임용거부사유가 너무나 빈약한 사안이라는 느낌을 주었기 때문에 ‘잘 해결되겠지’라는 기대감이 있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출처를 알 수 없는 ‘~카더라’는 대학을 혼란스럽게 만들어 구성원들을 불안하게 하고 각종 의혹을 낳는 결과를 초래했다. 이런 일련의 과정에서 성명서가 남발되고, 재심의와 재추천 논의과정에서 구성원 간의 과격한 의견이 분출됐다. 그러나 감정 분출만 있었지, 조정은 거의 없었다. 교수회가 그 역할을 담당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런 노력이 보이지 않아 왔다.

작금의 현실은 우리 대학의 비상사태다. 이런 중차대한 시기에는 교수회장을 비롯한 몇몇 교수회 임원들의 의견을 넘어, 전체 교수회를 통해 교수들의 총의를 모아 사태해결에 진력했어야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 한 번의 전체교수회의를 소집하지 않고 일반교수들이 사전에 알지 못하는 성명서를 교수회 혹은 교수회장의 이름으로 발표하는 것은 교수사회와 학교의 신뢰를 떨어뜨리는 행위이다. 사전설명을 통해 교수들의 동의를 구했다면 좀 더 바람직한 의견들을 모을 수 있었으리라 생각한다.

총추위도 사정은 다르지만 비슷한 면이 있다. 물론 위원들의 정상화 노력을 높이 평가한다. 한 가지 아쉬운 점은 각 단과대학 구성원들을 대표했기 때문에 대표성을 인정하지만, 전 구성원의 의견을 수렴하는 노력이 부족했다고 보인다. 회의결과 만을 짧막하게 전자문서게시판에 올리기에 앞서 회의과정을 구성원들에게 전달하려는 노력이 부족했고 그것이 총추위를 불신하는 요인으로 작용했기 때문이다.

이번 사태를 통해 우리 대학은 많은 것들을 잃어버렸고, 대학 간의 경쟁력 약화, 지역사회로부터의 불신, 구성원 간의 대립 등 시련을 겪었으며 산적한 과제도 많아졌다. 빨리 치유해야 한다. 현실을 냉철하게 인식하고 대학발전을 위한 힘을 모아야 할 때이다.

방법은 다르지만 길은 알고 있다. 대립과 대치보다는 용서와 관용, 화합과 이성을 가지고 구성원 전체가 진지하게 논의해야 한다. 이 학교는 교수, 교직원들과 학생들만의 대학이 아닌, 이 대학을 일구어 온 동문과 이 대학을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의 것이기 때문이다. 빠르면 빠른수록 좋다.

독자기고

교육방송국 동문지 ‘동행’을 펴내며



조승훈

라온레저개발 홍보팀장, JEBS 21기

제주대학교 교육방송국(JEBS) 40년사 ‘동행(同行)’이 최근 발간됐다. 나이 ‘40’을 뜻하는 불혹(不惑)은 삶에서 중심을 못 잡고 갈팡질팡하거나 판단을 흐리는 일이 없게 됐음을 의미한다. 인생과 마찬가지로 JEBS의 경우에도 불혹은 관록이 쌓인 원숙한 무게감으로 다가온다. JEBS 40년사 편집위원장인 조승훈 동문(83학번)을 통해 JEBS 동문들의 탐과 성취의 발자취를 살펴봤다. [편집자 주]

JEBS가 처음 문을 연 것은 1968년. 고(故) 옥영수 여사가 방송장비를 기증한 게 개국의 시초였다. 당시 방송 기자재라고 해봐야 2개의 튜네퍼, 전축 수준의 앰프, 마이크 4대, 행사용 스피커가 고작이었다. Inter-M CMX-

2464(오디오 콘솔 믹서 24CH/40UT), ‘SONY DSR-PD 170’ 모델의 디지털 캠코더까지 갖춘 지금과 비교하면 격세지감이다.

JEBS가 방송국으로서 위상을 다지게 된 것은 아라동 캠퍼스로 옮기고 난 뒤다. 1981년 스튜디오가 갖춰지고, 학내에 42개 스피커가 설치됐다. 내가 JEBS와 인연을 맺은 것도 이 때다. 1983년, 대학 새내기인 내게 JEBS는 가시 없는 풍경을 통해 세상살이 본디 모습을 일깨워줬던 도사락 반한 굴뚝에 절은 책갈피와 같은 곳이었다.

방송 수당이 나오면 으레 행했던 제주시민회관 인근 태원반점. 모처럼 갖는 전체 회식이었지만 자장면 한 그릇에 짬뽕국물을 안주로 소주를 들이키곤 했다. 안주라 모자라면 시대를 고민하는 치열함과 가슴앓이가 대신했다.

태원반점과 함께 JEBS 국원들이 즐겨 찾던 곳은 객주촌이다. 칠성동 아주반점 옆에 있던 곳이다. 이곳에선 임영 회식이 자주 열리곤 했다. 예나 지금이나 임대는 대한민국 남성들의 거쳐야 할 인생 최대 관문중의 하나다. 그때 불렀던 ‘임영전야’(최백호)는 이후 ‘임영열차 안에서’(김민우), ‘이

동병의 편지’(김광석)로 바뀌었다.

1990년대 들어 JEBS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영상방송으로 영역을 확장했다는 점이다. 1991년 첫 영상장비로서 ‘Goldstar GS-V 32’ 비디오무비가 도입됐다. 2004년 9월부터는 인터넷방송을 했다. 디지털 캠코더 2대를 추가 확보해 시간과 공간에 제약을 받지 않은 영상방송의 시대를 열었다.

JEBS는 공모전에도 강했다. 1986년과 1987년 전국 DCA 대학생 광고대상(대홍기획 주최, 라디오 부문)을 잇따라 수상한데 이어,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와 한국방송영상산업진흥회(프리카)가 공동 주최한 ‘선택! 2008 UCC 공모전’에서 최우수상을 차지했다. 난 지금도 취업을 고민하고 있는 후배들에게 공모전은 자신의 능력을 보여주는 자리가 아니라 본인이 가능성을 보여주는 자리이며, 취업능력을 높이는 데 지름길임을 강조한다.

JEBS는 학내 커뮤니케이션의 중심축이자, 방송제와 아라가요제, 영상제, 하계 이동방송 등을 통해 대학문화 발전과 대학과 대학, 대학과 고교, 대학과 지역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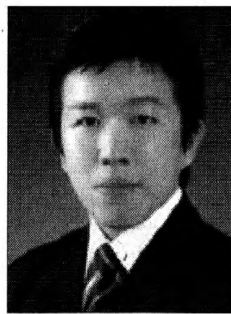
잇는 가교역할에 충실했다. 아라가요제 대중가수 찬조 출연 문화는 제주 공연사에 한 획을 그었다. 노래를 찾는 사람들, 안치환, 정태춘 등 1990년대 초까지 한 해라도 학생들이 라이브 콘서트를 접할 수 있었던 기회가 아라가요제가 아니었다 생각된다.

개국한 지 40년이 흐른 지금, JEBS는 질적·양적으로 괄목성장을 했다. 그러나 마음 한 켠 아쉬움도 없지 않다. JEBS 음반실, 이곳에는 1기(1968년)부터 43기(2006년)까지 사용됐던, 추억의 LP 3000장이 보관돼 있다. 이 LP들은 디지털음악의 진전과 함께 2006년 이후 거의 사용되지 않고 있다. 삶을 더욱 편리하고 스피드하게 변화시킨 디지털 세상의 장점에 이점을 덜어낸 사람은 없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기계 만능주의 속에서 하나 둘 아날로그 시대의 따뜻한 인간미를 그리워하는 사람 또한 늘고 있다.

모든 것이 사라지고 있다지만 결코 잃어버려서는 안 될 것이 바로 서로를 따뜻하게 소통시켜주는 따뜻한 인간미가 아닐까? 옛날을 생각하며 시커멓게 쓴 때 문은 통해 대학문화 발전과 대학과 대학, 대학과 고교, 대학과 지역을

독자기고

미디어법 유감



배형석 아간경영 3

대한민국에서 무지하고 우매한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사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지 싶다. 그런 무지함을 달래려고 구독해오던 신문이 오히려 역효과를 불러왔을 땐 ‘신문을 보지 않으면 삶이 편하다’는 괴테의 말처럼 과감하게 뿌리쳤다. 하지만 뿔린 눈과 귀는 막을 수 없는 것이 사람인가 보다. 솔직히 필자는 미디어법에 관해 세간에 유포되는 얘기에 맞장구도 쳐주지 못할 만큼 무지몽매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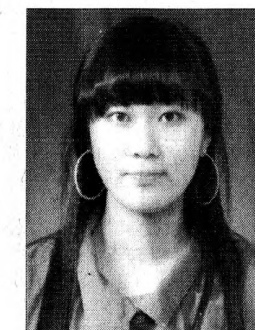
그렇다면 과연 미디어 관련법이 무엇이었길래 이토록 세간을 어지럽히고 시끄럽게 만든단 말인가. 구체적이면서도 간단하게 말한다면, 이 법안은 모두 7개 법안으로 방송사 지분제한 규정을 변경해 대기업과 신문사가 방송운영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전면 허용하는 방안인 ‘방송법’과 신문과 방송의 겸영이 가능해져 공영방송사마저도 민영화 가능해지는 ‘신문법’을 미디어 관련법의 핵심으

로 하며 논란을 거듭해왔다. 또 ‘정보통신망법’ 역시 일명 ‘사이버 모욕죄’라는 명목아래 논란을 낳고 있으며, 언론중재법은 신문 지원기관 통폐합과 기관장 임명권을 문화부장관에게 준다는 것으로 정언유착의 우려를 낳고 있다. 즉, 언론의 관치기관화가 되지 않기를 의심되는 부분이 있다. 여론의 독과점 현상을 야기할 수 있는 신문방송을 교차 소유 허용한 ‘멀티미디어법’, 마지막으로 외국자본의 유입을 허용한 ‘DTV 전환법’이 관련법의 내용이며 이는 한나라당이 2008년 12월 3일 신문방송 겸영 허용 등을 골자로 하는 미디어관련 법률 개정안을 마련한 것을 두고서 미디어법이라고 할 수 있겠다. 요즘 각 언론과 대중의 관심사는 소위 말하는 ‘미디어법’에 몰려 항상 시끄럽다. 2008년에 발의되어 지난 7월 22일까지 여·야는 첨예하게 대립하며 국민이 자기편이 되어주길 바래왔다. 특정 당을 거론하기는 적절치 않지만 미디어 관련법을 발의한 한나라당조차도 ‘신문법에 관해서는 제한적 장치만 필요하다고 했었다. 그러나 돌변한 태도, 파국에 치닫는 국회의 모습은 진정 블랙코미디가 아닐까.

현재 미디어 관련법이 직권상정을 통해 법률안이 통과되었다. ‘국민의 공감과 합의’는 오간데 없이 ‘야의 대립’은 국민을 혼란 속에 몰아넣고 ‘네 탓’ 공방을 지속해오며 일부 민주당 의원들의 ‘올모든’ 제기와 국회법위반을 내세

워 의결정족수 부족으로 부결되어 다시 논의되어야 할 방송법이 바로 재투표를 함으로써 가결되었다고 하며, 언론중재법은 신문 지원기관 통폐합과 기관장 임명권을 문화부장관에게 준다는 것으로 정언유착의 우려를 낳고 있다. 즉, 언론의 관치기관화가 되지 않기를 의심되는 부분이 있다. 여론의 독과점 현상을 야기할 수 있는 신문방송을 교차 소유 허용한 ‘멀티미디어법’, 마지막으로 외국자본의 유입을 허용한 ‘DTV 전환법’이 관련법의 내용이며 이는 한나라당이 2008년 12월 3일 신문방송 겸영 허용 등을 골자로 하는 미디어관련 법률 개정안을 마련한 것을 두고서 미디어법이라고 할 수 있겠다. 요즘 각 언론과 대중의 관심사는 소위 말하는 ‘미디어법’에 몰려 항상 시끄럽다. 2008년에 발의되어 지난 7월 22일까지 여·야는 첨예하게 대립하며 국민이 자기편이 되어주길 바래왔다. 특정 당을 거론하기는 적절치 않지만 미디어 관련법을 발의한 한나라당조차도 ‘신문법에 관해서는 제한적 장치만 필요하다고 했었다. 그러나 돌변한 태도, 파국에 치닫는 국회의 모습은 진정 블랙코미디가 아닐까.

과연 국민의 공감과 합의는 언제쯤 이뤄질지, 이 법이 정부 여당이 말하는 고부가 산업으로서의 기능과 언론의 다양성과 발전을 위한 미디어 발전법인지, 아니면 야당이 말하는 정언유착을 위한 언론통제의 수단으로서의 약법인지, 시종은 그 해답을 우리에게 제공하겠지만 필자는 국민은 언론에게 비판의 기능을 제공함으로써 알권리를 보장받고 역사적 관찰과 질의 향상을 목표로 해야 하며 사회적 합의라고 생각한다. 세계 글로벌 미디어의 황제 ‘루퍼트 머독’의 한국판이 탄생하면서 언론의 독점성과 종립성을 상실한 채 왜곡되지는 않을지 의구심이 들기도 한다. 이렇듯 무소불위의 언론 권력남용과 정언유착으로 민주화의 퇴보는 필자의 망상일까.



변가연 언론홍보 3

6월 26일부터 나의 생활은 180도 달라져 있었다. ‘유한 D&S’에서의 현장실습이 시작된 것이다. ‘유한 D&S’는 유한 킬빌리 및 아모레 퍼시픽 등에서 생산되는 생활용품들을 유통하는 물류 전문기업이다. 이곳에서 내가 주로 하는 일은 배송이다. 전날 찾아온 물건을 제주 전 지역에 위치한 여러 마

트에 배송한다.

일을 시작한 후 3일은 처음 접하는 고된 일에 팔, 다리가 아파고생을 했었다. 피곤해서인지 저녁 10시쯤 잠이 왔고, 입과선 옆으로 저녁이면 병원을 다녀야 했다. 하지만 이제 일에 익숙해지고 꽤 능숙해졌다는 칭찬도 받는다.

단순 노동일이라고 생각한다면 건디기 힘든 날들일 것이다. 그저 힘쓰고 땀 흘리는 아르바이트라고 생각하고 말 수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나는 모든 일이 새롭고 오히려 하루하루 배우는 일에 즐거움을 느낀다. 물론 더운 날씨에 온몸에 땀을 흘리며 일을 하는 것이 쉽지는 않다. 하지만 그만큼 내게는 소중한 경험으로 자리 잡고 있다.

제주지역에서 물류에 대한 발상의 전환으로 시장개척에 성공했다는 제주 대표 중소기업인 ‘유한

D&S’. 이곳에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진 것은 내게 운명처럼 찾아온 행운의 기회인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내게 묻는다. 기자가 꿈인 언론홍보학과 학생이 왜 방송국이나 신문사가 아닌 유통업에서 현장실습을 하는지.

이 물음에 나는 어렵지 않게 대답할 수 있다. “언론홍보학과 학생이기 때문이지.”

나는 작년 우연한 기회로 ‘제주 H.R.아카데미’라는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되었다. 이 프로그램은 크게 과학, 문화 등 다양한 서적을 고루 접하는 고전문학 시간과 직접 기업에서 행해지는 문제를 풀어보는 기업실무시간으로 이루어졌다.

약 1년 동안 이 활동을 하면서 나는 내가 우물 안 개구리라는 것을 느꼈다. 나는 아직 세상을 모르고 한 부분만을 바라보며 꿈을 키

웠던 것이다. 이러한 반성 끝에 현장실습에 도전하게 되었다. 깊이 있고 감동 있는 글을 쓰기 위해 사람들의 탐과 노력으로 이루어져가는 이곳저곳의 현장을 직접 느끼고 싶었다. 그리고 선택한 곳이 ‘유한 D&S’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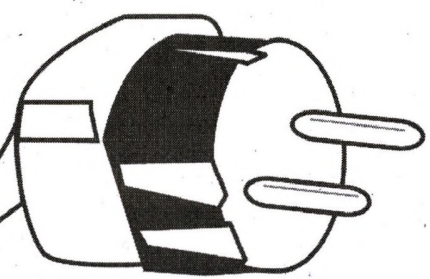
‘유한 D&S’에서 현장실습을 한지 한 달이 되었고, 이제 한 달이 남았다. 지금까지는 포장부터 배송까지의 일들을 배우는 적응 기간이었다. 그리고 남은 한 달은 이를 넘어선 또 다른 마음가짐으로 실습에 임할 것이다. 왜 ‘유한 D&S’가 꾸준히 성장할 수 있는 회사가 되었는지 그 비밀을 파헤치고 그것을 배우는 시간이 될 것이다.

난 하루하루가 설렌다. 그리고 오늘도 나는 머리를 집고 묶고 운동화 끈을 동여매며 ‘유한 D&S’로 향한다.

독자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독자 여러분들이 직접 쓴 글을 여론편에 게재하고, 독자제보를 받고 있습니다. 학교에 바라는 점이나 제주대신문을 읽고 난 후 느낀점 등 다양한 주제의 글을 보내주시면 소정의 원고료를 지급합니다.

원고를 보내실 때 이름, 학과 및 계좌번호를 꼭 기입해 주시길 바랍니다. 문의: 754-2279, park12@jeju.ac.kr, 홈페이지 http://www.cnpupress.com



우리대학 에너지 사용 현황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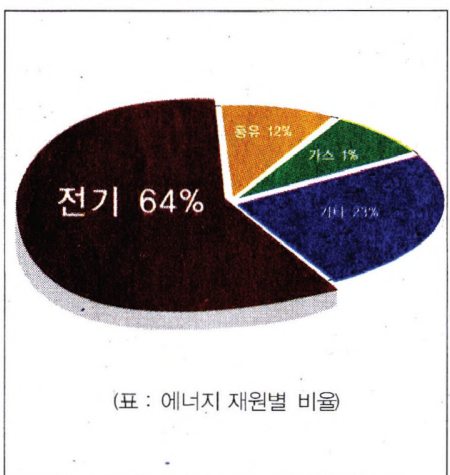
상반기 총에너지 2008년보다 8.1% 증가 에너지 절약 캠페인 전개해야

아무도 없는 공간, 잠깐의 시간속에 에너지는 소리없이 낭비되고 있다.

냉난방시설을 가동하고 식사를 하기 위해 사무실을 비워놓는 20~30분의 시간 속에 흐르는 전력, 즉, 생각지도 못했던 사소한 우리의 행동으로 에너지절약과는 멀어지고 있는 것이다.

사실 에너지 절약 문제는 어제 오늘일이 아니다. 이러한 문제가 자주 반복되는 것은 무엇보다 에너지 절감에 대한 대학인들의 인식이 낮기 때문이다.

지난해 전국을 강타한 '고유가' 시대의 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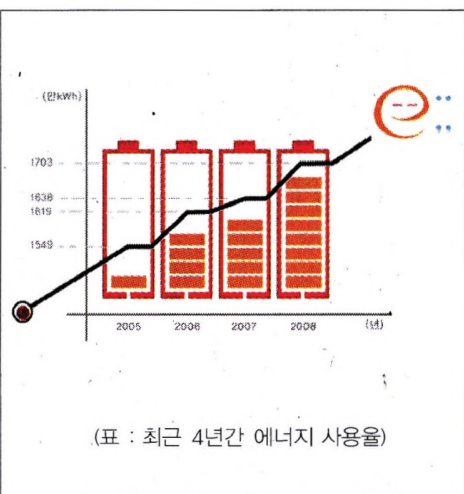
제위기 속에, 우리대학은 에너지사용 현황은 어떨까.

우리대학의 실제 전력사용량 현황을 분석한 결과 올 들어 6월까지 전력사용량은 총 900만4675kwh이다. 이 같은 사용량은 지난해 상반기 832만4349kwh와 비교하면, 8.1%가 증가한 것이다.

그렇다면 에너지 절약운동이 추진된 지난해 하절기 이후 실제 전력사용량은 어떠한 변화를 보였을까.

전력사용량이 많은 여름철을 맞아 지난해부터 시설과에서는 캠퍼스 에너지 절약을 위한 전력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고 있다. 전력관리계획은 하절기 동안 급증하는 냉난방 수요를 감안해 학내 전력을 원활하게 공급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지난해 7~9월 우리대학의 전력사용량은 411만2226kwh에 이른다. 이는 전년도 같은



기간 406만2889kwh와 비교하면 1.2% 늘어났다.

시설과에서 제시한 우리대학 전력사용량을 보면 에너지절약운동이 대대적으로 추진됐던 지난해의 전력사용량은 뚜렷한 감소현상을 보이지 않고 있다. 오히려 증가하는 추세다.

우리대학에서 에너지절약시책이 전개되고는 있으나, 실제 전력사용량을 줄이는 효과는 보지 못하고 있다. 이처럼 에너지가 증가하는 주요원인은 여름철, 겨울철 사용되는 냉난방 시설로 파악되고 있다.

에너지절약 운동이 전개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력사용량은 더욱 늘어난 것에 대해, 시설과 관계자는 "큰 강의실을 혼자 사용하거나 각 층에서 개인적으로 냉방시설을 구입해 사용하기 때문에 전력 사용량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며 "조금이라도 에너지를 절약하려는 학내구성원의 인식이 바뀌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이유로 학내구성원들의 인식이 바뀌지 않는 이상 앞으로도 에너지 사용량은 더 늘어날 것으로 예측된다.

타 대학의 경우는 어떨까

타 대학은 대체에너지를 활용해 전력수급량을 조절하고 있다.

에너지관리공단 자료에 따르면 전국 40개 이상의 대학에서 대체에너지를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주로 사용되는 대체에너지로는 지열, 태양광, 태양열 등이 있다.

또한 한양대는 작년 5월부터 교직원·학생들이 아낀 에너지의 20~50%를 돈으로 돌려주는 '에너지 절감 인센티브'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낮에는 창가쪽 전등을 끄고 가로등 2개 중 1개만 켜 8개월 동안 절약한 전기·가스·수도 요금의 1억 4000만원이다.

에너지 조절 시스템을 통해 예산을 절약하는 대학들도 있다. 이 조절 시스템은 센서가 부착돼 이 센서가 열과 움직임을 감지해 자동으로 작동된다. 그 예로 공주대를 들 수 있다. 공주대는 이 시스템을 통해 전력의 30%를 절약하고 약 5000만 원의 예산을 절약할 수 있었다. 또한 각 대학들의 에너지 절약 캠페인도 활발하다.

한편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대학들도 에너지 절감을 위해 노력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미국에서는 2007년부터 대학총장 기후변화 위원회를 구성하고 대학 캠퍼스 내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이는 대학에서 에너지 사용으로 발생하는 이산화탄소량을 최대한 줄이고, 재생가능 에너지 투자, 나무심기 등의 활동을 통해 '탄소 중립'을 하자는 것이다.

이렇듯 타 대학이나 해외대학들에 비교하면 우리대학은 에너지 절감을 위한 추가적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우선 대학구성원의 관심을 높이고 에너지 절감방안에 대해 논의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해야 한다. 또한 캠퍼스 내에 이용되는 에너지의 양과 감축목표를 설정해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할 것이라는 의견이 제시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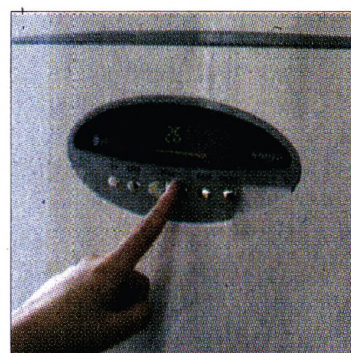
뿐만 아니라 에너지 사용 절감을 위한 많은 재생에너지 활용방안이 나오고 있는 이때 에너지관리공단에서 제공하는 재생에너지 설비 지원프로그램을 적극 활용하기 위한 대책수립이 시급하다는 방안도 제시된다.

이에 앞서 에너지 절감을 위한 대학 구성원들의 관심 및 인식향상이 전제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김도연 수습기자

◆ 에너지절약 실천운동

냉방기 적정 온도 유지해야 에너지 절약은 선택 아닌 필수



냉방적정온도 26℃로 유지하자.

바이오산업 활성화, 친환경 에너지 열풍 등 전 세계는 지금 에너지 전쟁 중이다. 그에 따라 우리 학교도 냉방기기 사용을 자제하고 선풍기 사용을 권장하는 등 에너지 절약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렇다면 학생들을 비롯한 모든 학내 구성원들이 생활 속에서 쉽게 실천할 수 있는 에너지 절약법에는 무엇이 있을까?

무엇한 사계절 보내기

여름은 더워야 여름이고, 겨울은 추워야 겨울인 것이다. 왜 요즘 우리는 추운 여름과 더운 겨울을 보내려 할까. 에너지도 절약하고 사계절도 배울 수 있는 더운 여름, 추운 겨울을 보내자! 현재 우리나라 적정온도는 여름 26℃이상 겨울 20℃이하이다. 그러나 에너지시민연대 조사결과 적정온도 평균 준수율이 46%에 불과하다고 한다. 건물의 냉, 난방 온도를 1℃ 높일 경우 약 7%의 에너지 절감이 가능하다. 그렇지 않아도 온난화 현상으로 사계절의 구분이 모호해지는 요즘, 적정온도 준수로 사계절도 느끼고 에너지도 절감하자. 에너지 절약으로 풍요로운 삶을 만끽해 보자.

에어컨 사용을 줄이자

에어컨보다는 전기 지출이 비교적 적은 선풍기나 노력한 만큼 결과

가 따르는 부채를 사용하도록 하자.

실내 냉방온도를 높이면 그만큼 에너지 사용을 절약할 수 있다. 작년 한 토론회에 참여했던 이승언 박사에 따르면 "상업 및 공공부문에서 실내 냉방온도 2℃ 향상에 100% 참여했을 경우 약 4840억 원의 비용 절감이 가능하다"고 한다.

또 에어컨 사용 시에는 점심시간과 퇴근 1시간 전에 끄도록 하자. 에어컨을 꺼도 1시간 정도는 연속적인 효과가 있다고 하니 미리 꺼 두는 것이 좋겠다. 이 경우 월간 약 37만 원, 연간 약 446만원의 절감효과가 생긴다.

안 쓰는 전기제품들은 플러그를 뽑아두자.

컴퓨터의 경우 10분 이상 사용하지 않을 경우 전원을 꺼두도록 하자. 단시간 사용하지 않을 경우에도 모니터만이라도 꺼두는 습관일 줄이는 것이 좋다. 이렇게 컴퓨터 전원을 절약했을 경우 월간 약 2130원, 연간 약 25600원, 전국적으로 실천했을 경우 약 512억 원의 절감효과가 생긴다.

조명 사용을 줄이자

아침 시간의 경우 많이 어둡지 않은 경우를 제외하고 소등하도록 하자. 점심시간 등 자리를 비울 때에도 반드시 소등을 확인하자. 빈 강의실 등 사용하지 않는 곳과 외출 시 소등할 경우 연간 약 5800원, 전국적으로 시행할 경우 약 864억 원의 절감효과가 생긴다.

이렇게 작은 실천들로 학교의 에너지 지출을 절감할 수 있다. 에너지 비용이 절약되면 그만큼 대학 구성원들의 복지향상 등에 활용될 수 있다. 조금만 관심을 기울인다면 에너지도 절약하고 환경도 보호할 수 있으니 생활 속의 작은 절약방안들을 실행하도록 노력해보자.

김현숙 수습기자

에어컨없이 여름나기

축축한 장마가 그치고 무더위가 찾아온 이때 대부분의 학생들은 더운 여름을 에어컨이 켜진 공간에서 시원하게 보내기만 급급하다. 거기다 하는 일 없이 빈둥거리며 이 여름을 심심하게 보내고 있다면 지금이라도 당신만의 여름나기를 찾아보는 것은 어떨까?

이색보양식으로 원기회복하기

더운 여름철 몸의 원기회복을 위해 찾게 되는 보양식들. 입맛도 없고 지치게 되는 여름에 체력회복과 식욕증진을 위해 이색보양식을 먹어 보는 건 어떨까.

가장 일반적인 여름철 보양식 삼계탕이 이색적인 재료들과 뭉쳐 태어난 '해신탕' 되겠다. 육지와 바다의 만남인 이 해신탕은 죽순, 수삼 등을 넣고 황기와 당귀, 오가피 등의 한약재가 들어가서 국물이 백미라고 한다.

전라도 지방에서는 여름철에 소가 더위를 먹으면 낫지 한 마리를 먹였을 정도로 낫지는 보양식중 하나로 꼽혔다. 서남해안에서 잡히는 낫지는 이맘때가 딱 제철. 타우린이 풍부해 피로회복과 정력보강에 좋은 낫지를 충남 태안반도에서 시원한 국물요리인 박숙낫지탕으로 먹어보

는 건 어떨까? 단, 이런 보양식을 먹는데도 주의할 점은 있다. 그것은 자신의 몸에 맞는 보양식을 먹어야 한다는 것이다. 자신의 체질에 맞지 않는 보양식은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주의하자.

안에서 할 수 있는 여름나기법

또 하나 여름에 절대 빼놓을 수 없는 것이 있으니 바로 '공포영화'다. 등골이 오싹할 정도의 공포영화를 시리즈별로 빌려서 옆에 잔뜩 쌓아놓고 밤새 혼자 보는 것도 괜찮다. 공포영화 시리즈 하면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중에서도 '주인' 시리즈는 일본공포영화에서 손에 꼽힐 만큼 최고의 인기를 얻은 영화이다. 또 한 가지를 꼽자면 우리나라의 유일한 시리즈공포영화 '여고괴담'도 빼놓을 수 없다. 학교괴담을 중심으로 영화화한 이 여고괴담은 많은 여배우들을 탄생시킨 영화이기도 하니 초창기 여배우들의 모습을 보는 것도 하나의 재미가 될 것이다.

그래도 무더위에 잠이 쉽게 오지 않는다면 책과 함께 더위를 나보는 건 어떨까. 지식도 쌓을 겸 이번방학을 통해 여러 가지 책을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접해보자. 꼭 문학소설이 아니어도 된다. 만

화책, 판타지, 연애소설 등 종류를 불문하고 당신이 좋아하는 책을 읽어 보는 거다.

만나라 이웃나라, 삼국지 시리즈 같은 책을 통해서 다양한 지식과 역사를 쉽게 알 수 있는 책을 보거나 다이어트 책, 건강책들을 통해 여름방학 동안 살을 빼는 것도 좋다. 또한 파리, 뉴욕, 일본 등 각 나라를 갔다 와서 쓴 여행기 책을 통해 간접체험을 해보는 것도 좋다.

밖에서 할 수 있는 여름나기법

아니면 삼림욕을 즐길 수 있는 산책을 하는 건 어떨까. 산책은 삼림욕의 피톤치드 효과와 더불어 신체를 건강하게 하는 2대 요인이다. 산책은 혈관자체에 유연성을 증가시켜 혈관을 젊게 하고 불필요한 지방을 제거시켜 근육량을 늘릴 수 있다.

비자나무로 둘러싸여져 있는 비자나무공원, 치유와 명상의 길이라고 해서 이름 붙여진 사려니 숲길은 삼나무숲길에 손수국이 피어있어 최고의 명품코스다 꼽혔다. 그 외에도 제주도를 둘러싸고 있는 11개의 올레코스를 정복하는 것도 괜찮을 듯싶다. 또는 가까이 제주대 안에서도 산책을 할 수 있는데 글로벌하우스 뒤편에 산책코스가 마련되어 있으니 한번 가보는 건 어떨까.

또한 이열치열에 맞게 더운 날씨에 땀나도록 운동을 하는 것도 좋다. 폐활량을 늘릴 수 있는 달리기, 기초체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농구, 근력을 기를 수 있는 배

드민턴 등 다양한 운동으로 더위도 잊고 살도 땀 수 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맛볼 수 있다.

'어디든 떠나고 싶다'고 생각된다면 머리 아프게 곰곰이 생각할 것 없이 여행을 떠나자. 멀리 갈 것도 없이 제주도 안에서 이색여름을 즐길 수 있는 곳은 어디든 있다.

만장굴과 기념사굴 중간에 위치하고 있는 제주 김녕 관음식물 미로공원, 키 큰 나무사이로 새길을 만들어 미로를 이루고 있어서 가족들과 함께 가면 좋을 듯하다. 아니면 바닷속 여행을 해볼 수 있는 차귀도 잠수함은 어떨까? 차귀도 섬에서 탈 수 있는 이 잠수함은 바쁘게 움직이는 물고기떼와 처음보는 산호들을 직접 눈으로 체험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그냥 시원하게 드라이브를 즐기고 싶다면 삼나무 숲길이 놓여진 112번 도로를 드라이브해 보라. 영화의 한 장면처럼 끝도 없이 펼쳐진 삼나무들이 당신을 기분 좋게 해줄 것이다.

아직도 에어컨 앞에 마냥 앉아 더위를 이기고 있는가. 그렇다고 나만의 여름나기를 찾는 것도 귀찮다고 생각된다면 여기에 제시된 이색여름나기를 따라해 보는 것도 괜찮은 여름나기가 되지 않을까.

문정화 수습기자

